

Annual Report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의 꿈을 성공의 꽃으로 피우겠습니다



2013년은 전년도까지 계속되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3% 성장대를 회복하고, 무역 3관왕(Triple Crown)을 달성하는 등 한국 경제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재창업·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진단기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성공 창업기업 육성”과 “진단기반을 통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성공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1,2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성공 창업을 위한 기반자금 지원강화를 위해 5조원 정책자금을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기업, 기술개발기업, 영세 소공인에 집중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창업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재기지원 컨설팅과 교육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는 등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진단기반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진단을 신구로 추진하는 등 기업진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지원사업으로는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1,004개사를 발굴하고 1,004명의 인력을 으뜸기업과 매칭하는 “천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

습니다. 아울러, 국내 판로지원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중기제품을 소개하는 스마트제품발굴사업 및 정책매장(HIT500)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창업초기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해외대형유통망진출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집행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추가 개소하는 등 지방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소공인,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과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31개의 현장점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애로는 정부부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원스톱 지원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변화 되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7개 수출 BI 중 6개를 글로벌 BI로 확대 개편하여 금융, 해외기술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자금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불편을 해소하고,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중진공은 2013년 5월 임직원의 뜻을 담아, 중진공의 역할을 꽃으로 형상화한 새로운 CI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CI에 걸맞게,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꿈이 아름다운 성공의 꽃으로 활짝 필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이사장

CONTENTS

발간사	02
연혁	06
중진공 비전·전략 체계	08
<hr/>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10
<hr/>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2013년 사업추진방향 및 실적	14
기업진단	17
정책자금	19
기술컨설팅	48
인력양성	54
마케팅·글로벌화	62
<hr/>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82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85
<hr/>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92
<hr/>	
부록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96
2013년 발간 간행물	99
2013년 주요 행사	100
조직도	101
운영위원 및 임원	102
<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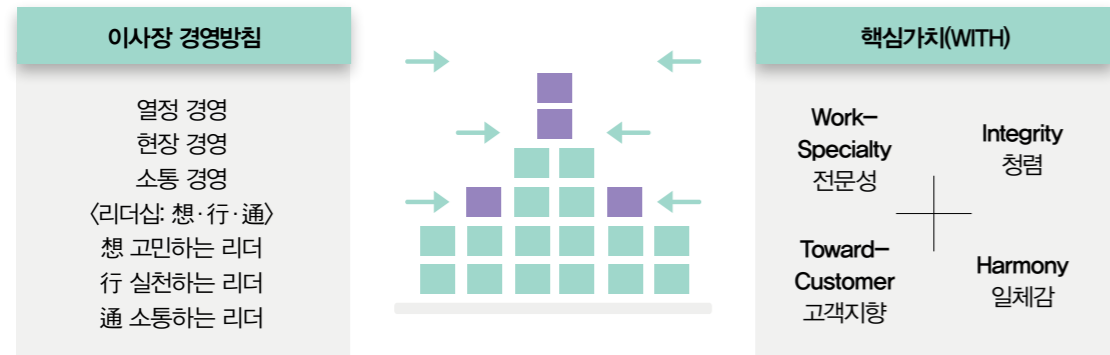
HISTORY

- '79.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및 기금 설치('78.12)
- '82. 10.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
지역연수원 개원 : 호남('01.9), 대구·경북('03.11), 부산·경남('04.10)
- '85. 2. **국내 지역본·지부 설치**
16개 지역본부, 15개 지부('13.2 현재)
- '89. 9.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수행**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 '93. 7.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 실시**
- '98. 7. **IMF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직접대출 전면실시**
- '98. 9.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BI 설치**
주요 11개국 17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 '02. 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 통합**
기금명칭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06. 9.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개소('07.4)**
- '08. 6. **정책자금 및 해외마케팅지원창구 단일화**
산기반자금 및 국내수출지원업무 인수, 4개 해외사무소 폐쇄
- '09. 1. **기금명칭 변경**
기금명칭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약칭 : 중진기금)」
- '09.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 '11. 3.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 '12. 1. **청년창업센터 개소**
16개 지역본부에 운영('13.2 현재)
- '12. 12. **“금융형 준정부기관” 지정**
- '13. 12. **“해외유통망진출지원센터” 설치**
미국 뉴저지 1개소

| 중진공 비전, 전략체계 |

미션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

비전 (슬로건)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
(중소기업의 꿈을 성공의 꽃으로)



전략 목표
① 성공창업기업육성 ② 진단기반의 성장사다리 구축 ③ 지속가능경영인프라 강화

전략 과제	1	청년창업의 One-Stop 서비스 제공	1	맞춤형 정책자금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1	중진기금 건전성 제고
	2	성공창업을 위한 기반자금 지원 강화	2	현장밀착형 창의 인재 확보 지원	2	고객중심 서비스 구현
	3	중소기업의 재도전 지원 강화	3	중소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지원	3	성과기반의 열린 조직문화 구축

| 중진공의 주요 사업 |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경제동향

2013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1년 4/4분기 이후 7분기만에 3%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민간 소비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 확대, 물가안정세 지속, 소비심리의 개선으로 회복세가 이어졌으며, 설비투자도 대내외 불확실성, 수요부진 등으로 상반기 중 부진했으나 3/4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하여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수출(5,596억달러)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고, 수입(5,156억달러)도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0.8% 감소하였다. 경기의 완만한 회복, 추경, 일자리 정책 등으로 취업자 수(25,066천명)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만5,000명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실업률도 3.1%로 하락하는 등 전년도부터 이어진 고용호조세를 지속하였다. 취업구조 측면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2013년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었고,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지속 감소세를 유지하던 청년층도 2013년도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도 들어 1% 내외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1.7% 하락하였다.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 (%)					
국내총생산(GDP)	0.3	6.3	3.7	2.3	3.0
국민총소득(GNI)	1.6	5.6	1.5	2.7	4.0
수출동향 (억달러, %)					
수출(FOB)	3,635.3	4,663.8	5,552.1	5,478.7	5,596.3
(증감률)	(Δ13.9)	(28.3)	(19.0)	(Δ1.3)	(2.1)
수입(CIF)	3,230.8	4,252.1	5,244.1	5,195.8	5,155.8
(증감률)	(Δ25.8)	(31.6)	(23.3)	(Δ0.9)	(Δ0.8)
무역수지	404.5	411.7	308.0	282.9	440.5
고용동향 (천명, %)					
경제활동인구	24,394	24,748	25,099	25,501	25,873
취업자	23,506	23,829	24,244	24,681	25,066
고용률	58.6	58.7	59.1	59.4	59.5
실업자(실업률)	889(3.6)	920(3.7)	855(3.4)	820(3.2)	807(3.1)
물가동향 (2010=100,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97.1(2.8)	100.0(3.0)	104.0(4.0)	106.3(2.2)	107.7(1.3)
생산자물가지수(전년대비)	96.3(Δ0.2)	100.0(3.8)	106.7(6.7)	107.5(0.7)	105.7(Δ1.7)

* 참고자료: 기획재정부(2014년 경제전망), 한국은행(경제활동별 성장률, 수출동향, 물가동향), 통계청(고용동향)

중소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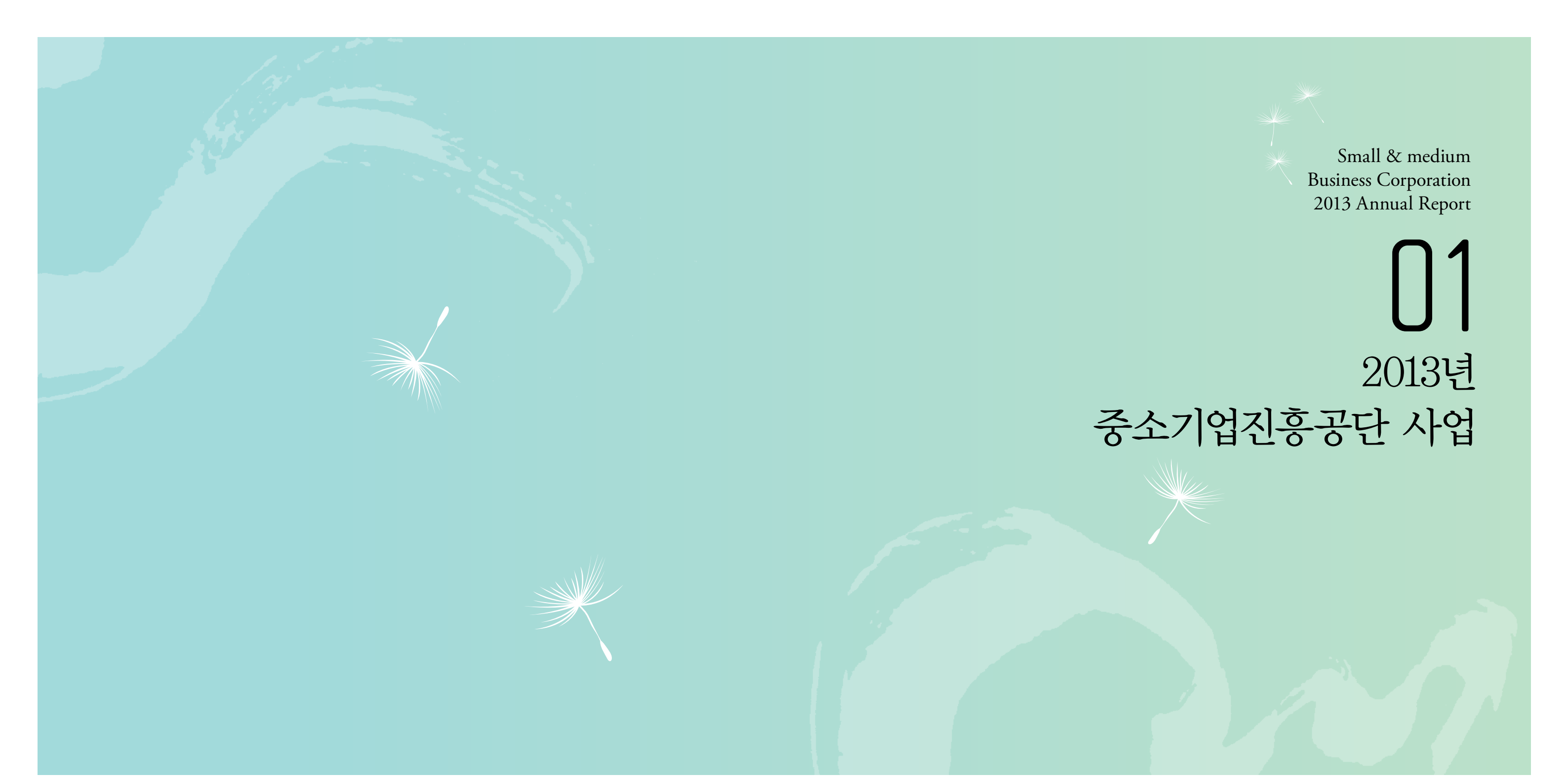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 중소기업 생산지수, 평균가동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2012년부터 이어진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계속되며 중화학, 경공업 분야의 설비투자 실시업체비율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연간 신설법인 수는 정부의 강력한 창업촉진정책 강화 추진과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75,574개를 기록하며, 전년에 기록한 2000년 이후 신설법인수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또한 부도업체수도 전년 대비 18.5% 감소한 1,001개로 2009년 이후 이어진 감소세를 계속 이어나갔다.

정부의 중소기업 중점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2013년도 말 기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489조원을 기록했다. 또한 5월 기준금리 인하조치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92%로 전년 대비 0.74%p 하락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리고, 저금리에 따른 차입부담 완화 등으로 인한 신규연체 감소로 중소기업 대출연체율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1.07%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관련 주요지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제조업 생산동향 (2010=100 기준)					
제조업 생산지수	85.7	100.0	106.0	107.5	107.8 ^o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87.3	100.0	105.2	105.4	107.1
설비투자 실시업체비율					
중소제조업(%)	15.4	16.9	16.8	16.6	16.1
- 중화학	17.2	19.2	19.0	18.1	17.8
- 경공업	12.8	13.1	13.4	14.1	13.2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평균가동률(%)	74.4	80.9	79.9	77.8	76.2 ^o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68.3	72.1	72.2	71.1	71.8
제조업 가동률지수 (2005=100 기준)	93.8	101.7	100.5	97.5	94.8 ^o
창업 및 부도동향					
신설법인 수(A) (개)	56,830	60,312	65,110	74,162	75,574
부도법인 수(B) (개)	1,364	1,142	967	890	705
신설/부도배율(A/B) (%)	41.7	52.8	67.3	83.3	107.2
부도업체 수 (개)	1,998	1,570	1,359	1,228	1,001
어음부도율 (%)	0.03	0.03	0.02	0.02	0.02
금융동향					
대출잔액 (원화대출, 연말, 조원)	중소기업 430.7	429.7	441.4	446.8	489.0
	대기업 75.5	87.3	115.1	142.2	166.1
대출금리(신규액기준) (연 %)	중소기업 5.65	5.68	6.00	5.66	4.92
	대기업 5.61	5.25	5.50	5.18	4.46
대출연체율 (연말, %)	중소기업 1.09	1.30	1.34	1.30	1.07
	대기업 0.35	0.35	0.25	0.90	1.13

* 자료: 통계청(생산동향, 설비투자 실시업체비율,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창업 및 부도동향, 금융감독원(금융동향))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3 Annual Report

01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2013년 사업추진방향 및 실적

기업진단(사업기반)

정책자금

기술컨설팅

인력양성

마케팅·글로벌화

2013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2013년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경기 약화, 엔화 약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구현', '민생경제 회복'으로 삼고, 이를 위해 '청년창업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 전망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2013년 기관 운영 중점방향을 '일자리 창출', '진단기반 정책금융기능 고도화', '창조형 중소기업 지원확대',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정책목표 및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진공이 2013년도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진공 사업추진 기반인 기업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대해 총 15,07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고, 지원 후에는 사후관리 진단을 실시하여 정책자금의 효과성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지원, 마케팅, 연수 등의 중진공 사업과 R&D, 보증 등의 유관기관 사업도 연계하여 진단기업에 대해 총 5,474건의 정책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정책자금 사업은 2013년 경기회복지원 및 개성공단 중단, STX그룹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20.3% 증가한 43,921억원(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제외)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창업기업 중점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전체 자금 중 전략산업에 30,852억원(83.0%)과 시설자금에 17,462억원(47.0%)를 지원하였으며, 건강진단 기반으로 정책자금을 1.51조원 지원하여 정책자금 지원효과성 제고 및 중소기업 위기 대응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년(650억원)대비 360% 증가한 3,000억원의 소공인 특화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재무구조와 담보력이 취약

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8.8%(2,965억원)를 신용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지원성과가 큰 창업초기기업(업력 5년미만)에 대하여 19,541억원(52.6%)를 지원하였으며, 고용창출기업을 우대 지원하여 1,607개 업체를 통해 8,529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개성공단 중단, STX그룹 구조조정 등의 대·내외적 불안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유동성 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150억원으로(당초 950억원) 증액하여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창업 자금을 전년(202억원)대비 101% 증가한 406억원 집행함에 따라, 실패 중소기업의 신용회복 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재기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투융자복합금융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통과해야하는 창업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익공유형 대출 1,278억원의 57%를 3년 미만 기업에 집행하였고, 성장공유형 대출 422억원의 60%를 5년 미만 기업에 집행하였다. 특히,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기업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기업을 투융자복합금융으로 33억원을 연계 후속지원하여 청년창업가의 잠재가치 증대 및 성장기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의 지식재산권(IP)을 경제적 기술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특허담보대출을 시범 운용하여 19개 업체에 50억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중진공은 2013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539개 기업 대상으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과 해외전문가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전거 해양레저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8개 기술개발과제를 신규지원하였다.

인력양성사업 중 연수사업은 74,155명을 대상으로 기술, 품질, 경영, IT, 디지털, 기업혁신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일본, 미국, 인도 등으로부터 원천기술, IT분야의 외국 전문 기술인력 201명 도입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하기 좋은 으뜸 중소기업을 발굴,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스마일스토리지(知)' 사업을 수행하여,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1,004개사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마케팅·글로벌화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지원사업에 1,704개 업체가 참여하여 62백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온라인으로는 Gobizkorea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2013년

까지 중소기업 외국어홈페이지를 3,788개 제작하였고, 35,668개사의 147,147개의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HIT500 제품 511개를 발굴하고, HIT500 PLAZA와 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판매지원을 통해 연간 2,185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2013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은 착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장점을 갖춘 15개 품목 32개의 스마트제품을 발굴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기여했다. 그리고 해외유통망에 중소기업제품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통망진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국, 인도네시아, 독일, 중국에 중기제품 전용매장(K-HIT PLAZA) 4개소를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해외협력기반 조성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산업협력사절단 11회 파견 및 초청, 산업기술협력관 20회 교환, 세미나를 10회 개최하였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10개사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에도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내·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성장·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력, 판로·수출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01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기업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진단 및 용자 후의 사후진단을 통해 정책자금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부실의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 자금 건전성을 강화하고 진단을 통한 문제점(기업애로) 분석과 처방전(해법) 제시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진단 추진절차

절 차	업 무 내 용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진단 신청서 접수(기업현황표, 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서류 징구) * 기업진단 신청서에 애로분야 표기 및 상담
진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방문/실태조사 진단은 3가지 방식(KPI기반, 진단자기반, 성과관리기반)으로 수행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평가 결과통보(보고서 송부 및 프레젠테이션) 사업연계추천서발급(정책자금 필요기업은 기업등급 동시산출) 연계지원 안내 및 상담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 소요금액 검토 후 대출 자금이외 사업 : 사업별 연계지원 타기관 사업 : 정보제공 및 연계지원(R&D, 보증, 기타)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지원 실적집계 및 관리(4대 핵심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에 연계지원 결과를 피드백하여 계획수립에 반영

2013년도에는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대해 기업진단을 통해 총 15,07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고, 정책자금 용자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진단을 실시하여 정책자금의 효과성 달성은 물론 자금의 부실률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

원, 마케팅, 연수 등의 중진공 사업과 R&D, 보증 등의 유관기관 사업도 연계하여 진단기업에 대해 총 5,474건의 정책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중진공 사업연계 분야별 추천 및 지원실적

구 분	중진공 사업연계				유관기관 연계	
	자금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R&D	보증
진단기반 연계지원	2,934건 (15,072억원)	182건	8건	249건	789건 (614억원)	1,585건 (7,560억원)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용을 확산시키고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013년 기술가치진단 Tool을 신규 개발, 시범운영하여 19개사에 5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60개사에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식재산권을 평가하여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평가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다.

경제불황의 장기화 및 저성장 기조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에 위한 정상화 지원의 방안으로 진단기관(중기청, 신보, 기보) 및 시중금융권간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추천하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기업진단을 실시, 개선안을 도출하여 중소기업 지원유관기관 및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도에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중소기업 스스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중소기업이 경영계획 및 실행과정에서 오는 위험과 외부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위험을 사전·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정상적인 경영상황으로의 회귀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내·외부적 변화에 맞춘 기업진단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사업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진단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4년에는 이와 관련된 진단모듈을 연구, 개발,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에 개선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01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정책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자금은 창업 활성화 및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 재창업자금, 2012년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정책목적성에 맞는 특화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창업기업자금은 예산 15,300억원(창업기업지원 13,675억원, 청년전용창업 1,225억원, 재창업 400억원)을 8,189개 업체에 집행하였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창업기업	1,367,500	6,882	2,881,497	4,518	1,606,664	4,354	1,366,903
재창업	40,000	366	92,968	266	46,862	263	40,597
청년전용창업	122,500	4,559	215,812	3,592	123,908	3,572	122,500
계	1,530,000	11,807	3,190,246	8,376	1,777,403	8,189	1,529,969

가. 창업기업지원자금

1)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설립 5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금으로, 2013년까지 34,503개사에 9조 9,811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3년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사업은 성장유망 창업·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13,675억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367,500	6,882	2,881,497	4,518	1,606,664	4,354	1,366,903

창업자금 지원업체의 업력을 살펴보면, 설립 1년 미만 업체에 4,873억원(35.6%), 설립 1년 이상~3년 미만 업체에 5,053억원(37.0%), 설립 3년 이상~5년 미만 업체에 3,743억원(27.4%)이 지원되어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지원이라는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2013년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미만	2,134	1,046,496	1,297	585,021	1,237	487,310
1년이상~3년미만	2,827	1,080,527	1,902	585,127	1,833	505,295
3년이상~5년미만	1,921	754,474	1,319	436,516	1,284	374,298
계	6,882	2,881,497	4,518	1,606,664	4,354	1,366,903

매출액 규모는 창업 초기기업을 집중 지원함에 따라 매출액 5억원 미만 기업이 51.5%(7,03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94.6%(12,933억원)를 집행하였다.

2013년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5억원미만	3,970	1,628,404	2,316	844,898	2,223	703,518	51.5
5 ~ 10억원미만	801	265,112	556	141,891	538	127,234	9.3
10 ~ 50억원미만	1,606	673,798	1,235	410,582	1,187	350,100	25.6
50 ~ 100억원미만	329	193,256	264	125,512	260	112,455	8.2
100 ~ 300억원미만	166	112,827	141	80,713	140	70,656	5.2
300억원이상	10	8,100	6	3,068	6	2,940	0.2
계	6,882	2,881,497	4,518	1,606,664	4,354	1,366,903	100.0

지역별로는 경기 20.6%(2,822억원), 경북 10.0%(1,670억원), 서울 9.7%(1,331억원)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65.2%(8,913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1,324	361,610	783	138,442	761	133,103	9.7
인천	297	88,693	205	56,339	243	60,282	4.4
경기	1,741	687,288	1,041	337,263	972	282,175	20.6
부산	386	153,989	253	96,723	231	84,529	6.2
대구	262	102,600	204	75,291	195	61,461	4.5
광주	170	74,527	124	55,267	120	50,992	3.7
대전	175	65,339	127	42,104	121	29,195	2.1
울산	124	65,539	80	37,643	92	40,803	3.0
강원	151	63,556	112	45,972	116	35,623	2.6
충북	333	210,763	237	100,139	226	81,876	6.0
충남	326	171,259	232	111,611	215	86,219	6.3
전북	231	147,510	154	88,967	147	74,531	5.5
전남	208	115,603	164	80,667	158	63,856	4.7
경북	579	258,987	429	166,987	403	136,768	10.0
경남	525	292,598	334	158,069	317	132,901	9.7
제주	50	21,636	39	15,180	37	12,589	0.9
계	6,882	2,881,497	4,518	1,606,664	4,354	1,366,903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중진공 직접취급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65.0%(8,888억원)이며, 이 중 신용 대출이 37.7%(5,149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합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478,098	514,948	151,243	222,614	888,805	1,366,903

3) 제도개선사항

2013년에는 창업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시설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연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장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지원토록 제도개선하였다.

나. 재창업자금

1) 사업개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3년도에는 263개 업체에 406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3년도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집행실적이 전년(131개업체, 202억원)대비 101% 향상되었으며, 실패한 기업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40,000	366	92,968	266	46,862	263	40,597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중진공 직접취급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90.9%(369억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79.8%(324억원)로 집행되어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재창업기업이 재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합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3,700	32,403	-	4,494	36,897	40,597

3) 제도개선사항

실패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과거 업종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3년에는 과거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 부동산업, 음식 및 숙박업, 소매업 등의 경우에만 지원제외 하였다

다. 청년전용창업자금

1)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7%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13년도에는 3,572개 업체에 1,225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3년도에는 융자상환금 조정형으로 1,037개사 800억원을 지원하여 실패한 창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만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민간금융매칭형으로는 2,535개사 425억원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융자상환금조정형	2,024	173,312	1,057	81,408	1,037	80,000
민간금융매칭형	2,535	42,500	2,535	42,500	2,535	42,500
전체	4,559	215,812	3,592	123,908	3,572	122,500

* 민간금융매칭형 실적은 중진기금 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업종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대여금액 중 57.1%(700억원)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업종에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제조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융자상환금조정형	624	45,616	413	34,384	1,037	80,000
민간금융매칭형	1,466	24,423	1,069	18,077	2,535	42,500
전체	2,090	70,039	1,482	52,461	3,572	122,500

* 민간금융매칭형 실적은 중진기금 기준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는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신성장기반자금의 예산은 9,350억원으로 예산 대비 125.9%인 11,772억원을 지원결정하고 9,350억원을 집행하였다.

2013년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성장기반	815,000	2,462	1,553,973	1,947	1,036,024	1,753	815,000
융복합	120,000	193	220,173	216	141,176	227	120,000
계	935,000	2,655	1,774,146	2,163	1,177,200	1,980	935,000

가. 신성장기반

1)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가동비, 기술개발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3년도에는 1,753개사에 8,15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815,000	2,462	1,553,973	1,947	1,036,024	1,753	815,0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78.4%,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21.6%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47.1%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13.0%, 잡화음식료 12.7%, 전기전자 5.6%순이었다.

2013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938	698,340	753	478,276	663	383,742	47.1
전기전자	144	95,102	112	64,053	98	45,628	5.6
섬유화학	321	233,959	260	155,024	212	106,240	13.0
잡화음식료	283	191,338	230	137,959	205	103,740	12.7
기타	776	335,234	592	200,712	575	175,650	21.6
계	2,462	1,553,973	1,947	1,036,024	1,753	815,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24.9%(2,030억원)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3,301억원(40.5%), 수도권 이외 지역이 4,849억원(59.5%)으로 나타나,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2013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중
서울	326	162,051	234	91,551	233	81,994	10.1
인천	102	76,340	83	57,920	74	45,100	5.5
경기	659	455,135	485	279,429	411	202,973	24.9
부산	147	106,267	116	66,735	91	43,462	5.3
대구	107	56,050	95	41,364	97	41,326	5.1
광주	65	34,552	55	29,004	55	25,295	3.1
대전	69	41,107	59	32,034	53	17,622	2.2
울산	70	40,382	60	28,540	56	24,499	3.0
강원	51	20,991	43	15,850	44	15,076	1.8
충북	119	84,198	93	53,959	77	39,630	4.9
충남	111	73,867	90	54,518	85	46,207	5.7
전북	76	37,706	62	26,900	59	23,219	2.8
전남	75	40,206	67	31,039	61	24,760	3.0
경북	217	124,755	189	90,861	176	78,644	9.6
경남	248	193,286	199	131,200	163	99,623	12.2
제주	20	7,080	17	5,120	18	5,570	0.7
합계	2,462	1,553,973	1,947	1,036,024	1,753	815,000	100.0

중업원 규모별로는 중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전체 신성장기반자금 예산의 75.2%(6,129억 원)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였다.

2013년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5인이하	290	16.5	84,436	10.4
6 ~ 20인이하	681	38.9	267,440	32.8
21 ~ 50인이하	502	28.6	261,051	32.0
51 ~ 100인이하	202	11.5	142,982	17.6
101~ 300인이하	77	4.4	57,291	7.0
300인 초과	1	0.1	1,800	0.2
계	1,753	100.0	815,000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신성장기반자금 총 8,150억원의 지원액 중 직접대출이 52.0%(4,241억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64.0%(2,712억원), 보증서 대출이 19.1% (809억원), 부동산 대출이 16.9%(719억원)로 나타났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390,923	271,247	80,941	71,889	424,077	815,000

3) 제도개선사항

시설자금 사업별 대출한도를 기업별 용자잔액 한도로 확대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였고, 2013년 하반기 사업장 건축부지 매입과 사업장 매입을 지원하여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 제한적 운영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계산업진흥회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중고 설비 유통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실시하였다.

나. 융복합(협동화)사업

1) 사업개요

융복합(협동화)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공장과 부대시설, 생산·실험연구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투자비를 절감하며, 상호 경영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2) 사업 추진 현황

지역별로는 경기 21.4%(257억원), 충남 17.5%(210억원), 부산 12.9%(155억원)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75.6%(908억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17	17,987	20	17,160	7	3,536	2.9
인천	17	29,780	14	7,676	-	-	-
경기	62	69,434	65	33,506	55	25,696	21.4
부산	9	13,287	27	25,700	19	15,508	12.9
대구	4	3,298	5	3,674	9	2,685	2.2
광주	7	11,969	4	4,300	4	4,300	3.6
대전	10	7,360	5	1,252	12	4,085	3.4
울산	7	15,670	8	6,960	9	7,530	6.3
강원	16	16,879	12	6,417	9	2,750	2.3
충북	9	10,929	2	1,100	2	700	0.6
충남	14	10,891	18	10,052	43	21,019	17.5
전북	7	2,145	5	1,365	6	2,255	1.9
전남	7	2,884	6	2,010	7	2,710	2.3
경북	4	6,160	13	8,291	24	13,168	11.0
경남	3	1,500	12	11,713	21	14,058	11.7
제주	-	-	-	-	-	-	-
계	193	220,173	216	141,176	227	120,000	100.0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 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구조개선 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다. 2013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 3,150억원을(일반경영안정사업 1,000억원, 수출금융지원사업 1,407억원, 재해복구지원사업 39억원,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704억원) 전액 집행하였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경영안정사업	100,000	556	152,833	482	100,450	479	100,000
수출금융지원사업	140,700	360	131,262	295	82,222	374	148,385
재해복구지원사업	3,900	28	8,536	26	3,750	27	3,900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70,400	234	113,109	189	70,570	188	70,400
계	315,000	1,178	405,740	992	256,992	1,068	322,685

주)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예산 내에서 6개월 이내의 회전 금융으로 운용되어 예산보다 집행금액이 많음

가. 일반경영안정사업

1) 사업추진현황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10억~50억원 미만 기업이 38.2%(382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74.2%(742억원)를 집행하였다.

2013년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5억원미만	45	8,250	36	4,395	35	4,295	4.3
5 ~ 10억원미만	49	8,830	39	4,630	37	4,330	4.3
10 ~ 50억원미만	241	61,085	204	38,220	204	38,170	38.2
50 ~ 100억원미만	127	38,470	117	27,397	117	27,397	27.4
100 ~ 300억원미만	84	32,348	76	22,458	76	22,458	22.5
300억원이상	10	3,850	10	3,350	10	3,350	3.3
계	556	152,833	482	100,450	479	100,000	100.0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78.2%로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구입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동 사업의 목적에 충실하게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계·금속 40.2%, 잡화·음식으로 18.1%, 섬유·화학 14.7% 순으로 지원되었다.

2013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208	59,698	183	40,398	181	40,198	40.2
전기전자	27	7,145	24	5,145	24	5,145	5.2
섬유화학	73	21,330	67	14,753	67	14,703	14.7
잡화음식료	105	27,280	93	18,143	93	18,143	18.1
기타	143	37,380	115	22,011	114	21,811	21.8
계	556	152,833	482	100,450	479	100,000	100.0

종업원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전체 지원업체수의 77.5% (290개), 총 지원금액의 73.7%(1,092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이하	77	10,132	16.1	10.1
6 ~ 20인이하	212	42,012	44.2	42.0
21 ~ 50인이하	137	32,085	28.6	32.1
51 ~ 100인이하	43	12,571	9.0	12.6
101~ 300인이하	10	3,200	2.1	3.2
계	479	100,000	1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198억원(19.8%), 경남 97억원(9.7%), 경북 97억원(9.7%)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339억원(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58	15,485	50	9,647	47	9,222	9.2
인천	36	7,650	29	4,682	30	4,882	4.9
경기	99	30,593	91	19,860	90	19,760	19.8
부산	29	8,930	24	6,000	25	6,200	6.2
대구	28	7,675	27	4,980	28	5,160	5.2
광주	18	5,600	13	3,900	14	4,100	4.1
대전	21	5,150	18	3,350	23	4,250	4.2
울산	31	8,910	20	4,599	25	5,499	5.5
강원	13	2,085	13	1,931	12	1,731	1.7
충북	22	6,750	20	5,436	21	5,836	5.8
충남	32	8,100	30	5,470	24	4,570	4.6
전북	23	6,150	21	4,155	22	4,200	4.2
전남	26	6,260	22	4,500	21	4,300	4.3
경북	53	15,725	45	10,790	39	9,690	9.7
경남	60	16,220	52	10,200	51	9,700	9.7
제주	7	1,550	7	950	7	900	0.9
계	556	152,833	482	100,450	479	100,000	100.0

일반경영안정사업은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이 되었으며 담보별 지원현황을 보면 신용대출이 999억원(99.9%), 기타 대출이 1억원(0.1%)로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접대출			계
	신용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99,940	60	100,000	100,000

2) 제도개선사항

일반경영안정지원사업은 시중의 자금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역본부의 자금수요를 조사한 후 추경시 예산 편성하여 추석 등 시중의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

나. 수출금융지원사업

1) 사업추진현황

수출금융지원사업은 374개사에 1,484억원을 회전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애로 및 무역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하였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40,700	360	131,262	295	82,222	374	148,385

주) 회전자출을 포함한 실적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7.1%,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2.9%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42.2%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24.7%, 잡화음식료 11.5%, 전기전자 8.7%순이었다.

2013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142	56,052	123	36,432	153	62,697	42.2
전기전자	32	11,900	24	7,080	30	12,879	8.7
섬유화학	78	25,120	63	17,740	96	36,630	24.7
잡화음식료	39	12,310	33	8,960	41	17,019	11.5
기타	69	25,880	52	12,010	54	19,160	12.9
계	360	131,262	295	82,222	374	148,385	100.0

중소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전체 지원업체수의 77.5% (290개), 총 지원금액의 73.7%(1,092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중소기업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이하	36	8,865	9.6	6.0
6 ~ 20인이하	131	46,390	35.0	31.3
21 ~ 50인이하	123	53,966	32.9	36.4
51 ~ 100인이하	60	27,930	16.1	18.8
101 ~ 300인이하	24	11,234	6.4	7.5
계	374	148,385	1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271억원(18.3%), 서울 147억원(9.9%), 인천 104억원(7.0%) 등 수도권에서 522억원 (35.2%)을 지원하였으며, 경북지역에 9.5%인 140억원을 집행하는 등 비수도권에서 962억원(64.8%)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47	18,920	36	9,390	35	14,700	9.9
인천	24	9,700	20	5,500	25	10,420	7.0
경기	88	28,674	67	15,654	80	27,113	18.3
부산	23	10,040	21	7,128	23	8,913	6.0
대구	11	3,500	10	3,210	20	7,660	5.1
광주	14	5,263	11	3,800	16	5,320	3.6
대전	7	3,200	7	2,300	7	3,550	2.4
울산	12	5,700	10	3,200	14	7,100	4.8
강원	6	1,300	6	1,050	7	2,540	1.7
충북	21	6,080	18	4,750	21	8,090	5.5
충남	12	4,700	11	4,150	16	10,520	7.1
전북	8	3,250	7	2,900	15	7,300	4.9
전남	16	5,380	15	4,190	15	6,400	4.3
경북	27	9,575	24	6,860	33	14,029	9.5
경남	43	15,780	31	7,940	44	13,930	9.4
제주	1	200	1	200	3	800	0.5
계	360	131,262	295	82,222	374	148,385	100.0

주)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예산 내에서 6개월 이내의 회전 금융으로 운용되어 예산보다 집행금액이 많음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별 지원현황을 보면 신용대출이 1,470억원(99.1%), 기타 대출이 14억원(0.9%)로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접대출		
	신용	기타	계
담보별	147,005	1,380	148,385

2) 제도개선사항

2011년 도입한 '수출금융 5년초과 이용기업에 대해 졸업제'를 정착하여 수출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편중 방지를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였다.

다. 재해복구지원사업

1) 사업추진현황

연중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폭우 및 폭설 피해기업(17개업체, 22억원)과 화재 폭발 등 인적재난 피해기업 (10개업체, 17억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총 27개사 39억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 재해유형별 사업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연간계획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폭설	3,900	4	1,015	4	915
폭우		15	2,265	13	1,305
기타		9	5,256	10	1,680
계	3,900	28	8,536	27	3,900

재해복구지원사업은 전체지원액을 신용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하여,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소요비용의 신속한 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	3,900	-	-	3,900	3,900

2) 제도개선사항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금과 공동예산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자금이 적시에 적절히 지원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라.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1) 사업추진현황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워크아웃 진행 기업, 외화대출 피해기업 등 일시적 애로에 처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기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2013년 기업유형별 사업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연간계획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개성공단 입주기업	70,400	58	45,707	61	37,723
STX협력사 지원		46	20,310	42	13,660
대형사고 피해		29	9,915	21	4,080
매출감소 기업		37	12,800	23	3,990
이란수출 피해		7	3,642	7	2,180
기타		57	20,735	34	8,767
계	70,400	234	113,109	188	70,400

전체지원액을 직접대출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대출의 98.6%를 신용으로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급격한 자금경색과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상황 속에서 신속한 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	69,420	-	980	70,400	70,400

2) 제도개선사항

대내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및 반영하여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 대상을 신속히 추가운영하였다. 기술유출 피해중소기업 및 이란수출피해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을 추가대상으로 지정하여 해당기업의 일시적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였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소상공인의 창업안정 및 경영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유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SSM의 급증으로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 슈퍼마켓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나들가게 사업'의 일환으로 '나들가게자금'이 신설되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소상공인지원자금 내에 소공인 특화자금을 신설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과 재무구조과 취약한 소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가. 소공인특화자금

1) 사업개요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기반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소상공인진흥원(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집행되는 소상공인지원자금과 달리 중진공이 직접 집행하며 2013년도에는 3,397개 업체에 3,000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3년도에는 3,397개사 3,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우수한 소공인의 사업화 지원을 도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00,000	4,899	500,213	3,427	307,980	3,397	300,000

소공인 특화자금은 100% 직접대출을 하였으며, 신용으로 98.8%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무구조와 담보력이 취약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296,502	1,165	2,333	300,000	300,000

나. 소상공인지금

1) 사업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자금지원 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국민은행 등 19개)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집행된다.

* 소상공인 여부(사업자등록증,상시근로자수), 사치·향락업종 등 정부지원 제한업종 점검 후 발급

2) 사업추진현황

2013년 소상공인지금은 22,105개사에 6,345억원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 창업·경영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실적

(단위 : 억원, 개, %)

구분	예산(A)	대여		집행률(B/A)
		업체수	금액(B)	
2001년	3,700	14,313	3,700	100.0
2002년	3,500	10,310	3,185	91.0
2003년	3,500	13,914	3,496	99.9
2004년	3,500	14,756	3,456	98.7
2005년	5,100	19,605	4,642	91.0
2006년	4,552	16,300	4,395	96.6
2007년	3,457	12,449	3,442	99.6
2008년	2,890	8,531	2,672	92.5
2009년	10,967	46,457	10,966	100.0
2010년	3,000	10,582	3,000	100.0
2011년	4,450	15,882	4,450	100.0
2012년	4,400	14,197	4,393	99.8
2013년	7,500	22,105	6,345	84.6
계	60,516	219,401	58,142	95.8

* 2013년 예산 7,500억원 중 1,155억원을 2014년 이월 집행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1) 사업개요

2013년 신규 사업인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자금은 균형재정 유지 및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민간 금융 취급이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식이다.

* 이차보전 : 정부(또는 기금관리주체)가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금리와의 차이만큼 보전

2) 사업 추진 현황

2013년 1,794개업체 5,008억원 지원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급은 67억원으로 17개 협약은행에 지급되어 지원업체에 대한 대출금리 중 2~3%p를 지원해 주었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경영안정자금	2,194	876,330	1,945	543,940	1,794	500,761
이차보전	-	-	-	-	1,794	6,65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2013년도에는 1,335사에 3,3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였다.

2013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30,000	1,705	616,055	1,326	336,751	1,335	330,000

업종별 지원실적을 보면 기계·금속 1,321억원(40.0%), 섬유·화학 640억원(19.4%) 전기·전자 586억원(17.8%), 순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77.2%인 2,547억원이 지원되었다.

2013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 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615	229,408	497	137,756	499	132,121	40.0
섬유화학	263	106,320	214	65,305	215	64,021	19.4
전기전자	365	131,537	270	60,274	268	58,589	17.8
잡화음식료	154	52,795	125	32,832	135	35,313	10.7
기타	308	95,995	220	40,584	218	39,956	12.1
계	1,705	616,055	1,326	336,751	1,335	330,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899억원(27.2%), 서울에 449억원(13.6%)이 지원되는 등 수도권에 총 1,493억원(45.2%), 수도권의 지역에 1,807억원(54.8%)이 지원되었다.

2013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367	118,852	261	47,885	255	44,945	13.6
인천	75	27,400	65	14,380	66	14,451	4.4
경기	521	194,455	361	91,778	362	89,880	27.2
부산	86	31,277	70	16,746	71	16,530	5.0
대구	52	20,588	49	15,331	48	14,960	4.5
광주	32	10,603	26	7,463	27	7,500	2.3
대전	73	22,163	58	12,973	60	13,190	4.0
울산	38	14,550	31	7,632	31	7,572	2.3
강원	39	11,335	37	7,720	37	7,720	2.3
충북	55	24,264	47	17,974	49	19,739	6.0

충남	63	23,932	58	17,347	58	17,300	5.2
전북	69	25,578	57	17,224	59	16,330	4.9
전남	44	13,120	40	9,978	42	10,150	3.1
경북	89	38,517	75	25,388	80	24,953	7.6
경남	90	37,531	80	25,582	79	23,430	7.1
제주	12	1,890	11	1,350	11	1,350	0.4
계	1,705	616,055	1,326	336,751	1,335	330,000	100

기술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 등록기술에 대한 지원이 1,349억원(40.9%), Inno-biz 업체에 대한 지원이 822억원(24.9%)으로 특허·실용신안 등록기술과 Inno-biz 업체 보유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2013년 기술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정부시행기술지원사업	150	36,549	11.2	11.1
특허/실용신안	608	134,924	45.5	40.9
저작권	4	380	0.3	0.1
기술이전	2	400	0.1	0.1
Inno-biz	272	82,226	20.4	24.9
공인 인증 및 평가기술	13	3,050	1.0	0.9
기업부설연구소	286	72,471	21.4	22.0
계	1,335	330,000	100.0	100.0

기업규모별 지원실적을 보면,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기업에 2,599억원(78.8%)을 지원하여 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인 이하 소기업에 지원금액이 1,428억원(43.3%)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이하	166	23,638	12.4	7.2
6 ~ 20인이하	597	119,206	44.7	36.1
21 ~ 50인이하	407	117,055	30.5	35.5
51 ~ 100인이하	125	52,092	9.4	15.8
101 ~ 300인이하	39	17,509	2.9	5.3
300인초과	1	500	0.1	0.2
계	1,335	330,000	1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술개발기업에 신용대출(2,943억원, 89.2%) 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3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2,283	294,333	21,384	12,000	327,717	330,000

3) 제도개선사항

지식재산권(IP)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금융시장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3년도 하반기부터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특허담보대출을 시범 운용하여 19개 업체에 50억원을 집행하였다. 이는 부동산중심 담보대출 풍토를 선진형 기술금융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성 및 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가 부족한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육성의 좋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자금지원(100% 신용대출) 방식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다. 2011년까지 정책자금 내 지원방식의 하나로 시범운영 후, 2012년 별도 정책자금으로 편성하여 2013년에 625개사에 연 예산 1,7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통과해야하는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67.1%를 5년 미만기업에 집행하였다.

2013년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이익공유형 대출	131,000	637	177,491	566	126,471	572	127,823
성장공유형 대출	39,000	80	67,875	53	46,149	53	42,177
계	170,000	717	245,366	619	172,620	625	170,000

가. 이익공유형 대출

1) 사업개요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 있는 초기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 후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영업이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연동이자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3년도에는 572개사에 1,27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의 금융비용을 완화하여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일조하였다.

이익공유형 지원업체의 업력을 보면, 업력 5년 미만인 69.4%(3년 미만 57.2%)로 창업초기기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였다.

2013년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미만	146	37,479	129	28,189	129	28,143	22.0
1년~3년미만	236	66,010	204	45,648	202	44,940	35.2
3년~5년미만	82	22,217	73	15,954	71	15,594	12.2
5년~7년미만	35	10,200	30	6,702	33	7,552	5.9
7년이상	138	41,585	130	29,978	137	31,594	24.7
계	637	177,491	566	126,471	572	127,823	10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79.0%,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21.0%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기계금속,잡화음식료, 섬유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2013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227	66,150	203	48,377	212	50,365	39.4
전기전자	64	17,220	57	11,750	57	11,750	9.2
섬유화학	80	22,630	71	16,400	69	15,934	12.5
잡화음식료	108	29,880	102	23,139	100	22,819	17.9
기타	158	41,611	133	26,805	134	26,955	21.0
계	637	177,491	566	126,471	572	127,823	100.0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4.7%, 경북에 10.9%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75.8%(96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구성비
서울	43	12,835	32	7,330	32	7,430	5.8
인천	30	6,820	27	4,680	27	4,680	3.7
경기	101	28,000	89	18,890	88	18,790	14.7
부산	63	16,810	56	10,234	58	10,800	8.4
대구	29	7,800	25	6,454	26	6,848	5.4
광주	23	5,420	19	4,250	18	4,050	3.2
대전	11	3,200	11	2,200	11	2,200	1.7
울산	22	5,448	19	3,750	24	4,500	3.5
강원	32	7,850	29	6,000	29	6,000	4.7
충북	29	10,300	27	8,340	27	8,340	6.5
충남	24	6,100	20	4,407	21	4,537	3.5
전북	37	11,520	34	9,257	33	9,039	7.1
전남	47	12,825	45	10,600	44	10,450	8.2
경북	61	19,986	55	13,429	57	13,929	10.9
경남	73	19,597	66	14,180	65	13,730	10.7
제주	12	2,980	12	2,470	12	2,500	2.0
계	637	177,491	566	126,471	572	127,823	100.0

3) 제도개선사항

이익연동이자자는 매년 결산후 일정시점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연동이자를 당초 이익연동이자 납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하였다.

나. 성장공유형 대출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3년도에는 53개사에 422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3.4%,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6.6%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기계금속, 섬유화학, 전기전자, 잡화음식으로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2013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19	17,000	13	12,900	14	13,168	31.2
전기전자	15	12,600	8	6,600	8	6,600	15.6
섬유화학	15	16,755	9	11,049	9	9,009	21.4
잡화음식료	11	9,220	9	7,600	9	6,400	15.2
기타	20	12,300	14	8,000	13	7,000	16.6
계	80	67,875	53	46,149	53	42,177	100.0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9.0%, 서울에 19.6%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6.7%(197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한 결과이다.

2013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18	11,300	15	9,000	15	8,268	19.6
인천	4	3,000	2	2,000	2	2,000	4.7
경기	22	21,450	15	14,950	15	12,250	29.0
부산	2	1,500	2	1,500	2	1,500	3.6
대구	1	1,000	2	2,000	2	2,000	4.7
광주	-	-	-	-	-	-	0.0
대전	5	5,000	1	1,000	1	1,000	2.4
울산	3	2,500	1	1,000	1	1,000	2.4
강원	1	500	1	500	1	500	1.2
충북	3	3,225	2	2,205	2	2,200	5.2
충남	3	2,000	1	1,000	1	1,000	2.4
전북	5	3,300	2	1,600	2	1,600	3.8
전남	3	3,000	2	1,800	2	1,800	4.3
경북	5	5,100	4	4,094	4	3,559	8.4
경남	5	5,000	3	3,500	3	3,500	8.3
제주	-	-	-	-	-	-	0.0
계	80	67,875	53	46,149	53	42,177	100.0

3) 제도개선사항

창업기업가에 대한 후속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기업에 33억 원을 성장공유형 대출(CB)로 후속 지원하여 청년창업 성공유도와 일자리 창출의 도모에 일조하였다.

사업전환지원자금

가. 사업전환지원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06년 9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3년까지 총 1,430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여 1,884개사에 10,2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하였고, 508개사에 67.3억원의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13년 사업전환지원사업은 163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융자예산 대비 127.4%인 1,816억 원을 지원결정 하여, 324개사에 1,617억 원을 지원 하였다.

2013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예산	신청액	지원결정액	대여업체수	대여액
1,425	2,349	1,816	324	1,617

사업전환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163개사 중 95.1%인 155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은 4.9%인 8개사이다.

2012년부터는 품목추가 유형이 폐지되어, 품목추가 유형에 대한 신규승인은 없으나, 기승인업체는 사업전환 실시기간(승인후 3년)동안 융자연계가 가능하여, 2013년도에 약 4억원이 대출되었다.

2013년 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신규승인		자금지원			
	업체수 업체수	비중 비중	지원결정		대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업종전환	8	4.9	143	7.9	102	6.3
업종추가	155	95.1	1,667	91.8	1,511	93.4
품목추가	-	-	6	0.3	4	0.3
계	163	100.0	1,816	100.0	1,617	100.0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추진을 위해 50개사에 6.6억원의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유희자산(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을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13년 4월에 오픈하여 운영하며, 사업전환 성공사례집 제작 및 신문보도 등 다각적으로 사업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나. 무역조정지원

1)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용자 및 상담(컨설팅)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무역조정지원센터는 2007년 4월 사업 개시 이후 2013년까지 39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115억원의 용자를 지원하였고, 21개 FTA피해기업을 대상으로 4.7억원의 경영·기술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다.

2012년 7월 18일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등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중진공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2013년부터 모든 신청기업에게 신청 상담, 신청서 작성지원, FTA피해 입증까지 5단계에 걸친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개시 이래 가장 많은 기업이 FTA피해를 인정받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FTA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인정된 업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FTA피해기업 발굴에 노력한 결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이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지원 실적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무역조정 기업 지정	-	2	3	2	0	8	24	39
용자지원	-	200	500	850	200	1,485	8,299	11,534

그리고, 기업과 접점에서 활동하는 경영·기술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무역조정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사례집 및 리플렛제작, 무역조정지원기업 사례보도, 신문 이미지 광고 등 종합적인 홍보 채널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인식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술컨설팅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진공은 2013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과 해외전문가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중진공이 30년간 지도사업을 통해 축적한 컨설팅사업 수행능력을 기반으로 지원기업 선정부터 점검,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중진공 책임 하에 수행하여 2013년에 539개 기업을 선정하여 67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는 컨설팅과제 규모 제한 폐지, 컨설턴트 평가등급 공개 등을 통해 다양한 컨설팅 수요를 충족시키고 컨설팅 품질 및 수진기업 만족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해외전문가의 고유기술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첨단·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2013년 컨설팅 지원 성과〉

- 인당생산성 : 97.7백만원 → 111.5백만원 (14.12% 증가)
- 생산납기준수율 : 81.63% → 94.38% (15.62% 증가)
- 공정불량률 : 4.45% → 2.03% (54.38% 감소)
- 제조원가율 : 81.41% → 76.47% (6.07% 감소)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며 과제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동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보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성공시, 기술료를 정부보조금의 20% 이내에서 납부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13년도 정부보조금 규모 및 지원 내용

‘13년 예산	• 1,510백만원
지원기간	• 2년 이내
지원한도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신규과제 접수 결과 총 37개 과제(자전거 분야 19개 과제, 해양레저장비 분야에 18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개 과제(자전거 6개, 해양레저장비 2개)를 최종 선정하여 신규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 선정 된 과제 중 연차평가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4개 과제(자전거 2개, 해양 2개)를 계속과제로 지원하였다.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 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1건, 특허출원 3건, 시제품 출시 5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녹색경영확산사업

국내외 녹색규제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녹색경영확산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우수Green-Biz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녹색경영: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우수Green-Biz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그린비즈 컨설팅을 지원(199개, 1,550백만원)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진단하고, 기업 규모별·특성별 경영전략 도출 및 개선과제 지원을 통해

서 우수 Green-Biz 87개사를 배출하였다. ('12년 71개사 → '13년 87개사)

또한 우수 Green-Biz 선정 활성화를 위해 녹색경영 평가지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고, '제2회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러 중소기업 기술매칭사업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고비용 등으로 기술 도입선의 다변화를 위하여 원천 기술과 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러시아와 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였다.

한·러 기술협력 사업은 러시아의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인 트리즈(TRIZ)를 국내 중소기업에 보급하여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에는 5개 업체를 선정하여 트리즈 기법 전수 및 국내외 트리즈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특히 2건 출원,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효과로 참여기업의 역량을 증대 시켰다.

정책중개

중진공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의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중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중진공은 기관의 강점인 현장성을 살려, 31개 지역본지부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가 상시로 수집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매일 수집된 애로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매일 중소기업청 등 정부에 정책개선과제로 전달하며 "정부정책과 중소기업 현장의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진공 서울북부지부 내에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정책중개 업무를 통해 2013년 총 1,379건의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116건을 정부에 개선 건의 하였고 이 중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완화 등 총 24건이 시책에 개선사항으로 반영되었다.

2014년에도 31개 현장 접점부서와 함께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해소에 기여하고, 또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정책반영 내역>

번호	건의명	반영내용
1	소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시 물적요건 완화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시 연구전담요원 확보 기준(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이상)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을 가중 (개선)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3년 동안 인적요건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2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와 건강검진 통합 실시 요구	(현황) 외국인력은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검진후 등록시 마약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개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취업교육기관에서 마약검사를 포함하여 실시
3	정부양곡 매입시 현금이외의 매입결제 조건 다양화 요구	(현황) 쌀 가공업체 등 정부양곡 수요업체가 정부양곡 매입시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가능 (개선) 영세한 쌀가공업체의 유동성 편의제공을 위해 정부양곡의 외상판매 허용
4	기업승계 세제지원 대상 확대 요청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인이 기업전부를 상속받을 경우에만 적용 (개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를 허용
5	공공부문의 업무용역시 추가업무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현황) 공공부문 용역사업시 입찰공고나 계약당시의 과업지시서에 없던 추가업무 지시가 빈번하게 발생 (개선) 발주기관이 계약목적상 필요하여 추가업무나 특별업무를 지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당한 대가를 지급토록 감사 등 행정지도 강화
6	농협의 납품대금 지연결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요청	(현황) 중소기업이 농협협동조합에 물품을 1분기에 납품하면 2분기말에 대금결제(5개월 소요) (개선) 농협중앙회에 납품대금 결제지연 등 불공정 관행 신고센터 설치 및 정기감사 사항에 포함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
7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현황)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 기준에 대한 개선필요 (개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8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품목 확대	(현황)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품목이 자동차부품 10개에 불과하여 재제조 산업 육성 저해 (개선) 대상 품목을 '13년 50개로 확대하고, '15년까지 전산업분야 100개 이상을 대상 품목에 포함
9	음식물제조업 대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현황)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운영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
10	APEC 기업인여행 카드 발급대상 확대	(현황) APEC 기업인여행카드는 회원국 입국시 비자면제 및 전용심사대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 편의제공. 발급대상을 대외무역법상 '물품' 수출입 업체로 한정함에 따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S/W, 문하·콘텐츠) 등을 수출입하는 업체는 제외 (개선) 법개정을 통해 발급대상을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하는 업체까지 확대
11	콘텐츠 품질수준에 대한 기준 단가 제정 요청	(현황) 콘텐츠 부문에 대한 표준 단가 기준이 없어 불합리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 (개선) 콘텐츠(동영상, 조감도, 구조도 등) 품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 단가 제정
12	소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제도 마련	(현황) 20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별 일반요율을 일괄적으로 적용중 (개선) 소기업의 적극적인 산재예방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예방요율 제도 도입

13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신청시기) 완화	(현황) 고용환경을 개선(기숙사, 통근버스 등)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개선)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설계계약, 인·허가 요청 등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전절차는 허용
14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현황) 뿌리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개선) 관련 실태조사 후 관련부처와 지정요건 완화 추진
15	지자체 의뢰 조달청 입찰계약 검수검사의 중복실시 방지	(현황) 지자체에서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의뢰시 조달청과 해당 수요기관(지자체)에서 납품제품 검수를 각각 실시 (개선) 현행 지방계약법에서 물품구매시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하여야 하는 바, 조달청 검사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교육
16	보증보험 이행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 요구 개선	(현황) 영세기업이 도시가스사용료 납부이행보증서 발급시 보증보험이 연대입보 요구 (개선)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폐지
17	외부감사 대상 총액기준 차등 적용	(현황)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장치산업과 같이 시설투자가 많이 필요한 업종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개선) 외부감사대상 자산기준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
18	예비벤처기업 인증제도 개선	(현황) 기술성 평가를 거쳐 '예비벤처' 확인을 받은 자가 창업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때 기술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개선) 예비벤처 확인후 1년내 창업하여 벤처확인 신청시 기술성평가 면제
19	해외인력 고용신청 제도 개선	(현황)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수시로 알선요청서를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과 고객의 불편이 높은 상황 (개선)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모바일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사업주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업장정보 조회, 외국인근로자 알선 요청, 적격자 선정 등 민원 업무 처리 가능
20	산업단지내 소기업 입주 기회 확대	(현황)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여도 소필지로 제공되는 부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산업단지가 제공하는 양호한 입지여건을 향유하는데 한계 (개선)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분양된 산업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최소면적을 관행적으로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
21	전자협약용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현황)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은 11만원으로 개인 범용, 은행용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의 25배 수준의 고가이며, 매년 갱신 시 같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불합리한 점이 있음 (개선)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중소기업 공정책 신 컨설팅을 위한 전자협약 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22	법인전환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전환전 개인기업의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	(현황) 개인기업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신용평가상 전환 전 개인기업의 실적 미반영 (개선) 실태조사 및 (은행별)예규 개정을 통해 금리 및 신용평가시 법인기업 전환전 개인기업의 실적 인정 ('14. 1)
23	원산지 관리사 인력지원제도 개선	(현황) 원산지관리사 취득시 민간단체 사전교육 이수 의무부여로 수출기업의 부담 증가 (개선) 선행교육 이수요건 폐지하고 신규 합격자 대상 실무수습 교육 실시 ('14. 1)
24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과점시정	(현황) 납세병마개를 제조하는 업체가 4개업체로 지정되어 두 회사가 90% 이상 장악한 독과점 발생 (개선) 제조업체를 3개 추가지정하여 7개로 확대 ('13. 11)

간행물발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정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 첫 해인 1979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매월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중소기업 경영·기술 전문지 월간 '기업나라'를 발간하고 있다.

2012년에 다소 가벼운 주제의 세분화된 기사 위주로 운영하던 특집·기획을 2013년 트렌드 및 산업동향 등에 맞게 여성경영인, 협업(콜라보레이션), 청년일자리, 기업승계, 글로벌화, 창의경영, 동업, 멘토링, 체험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심도있는 기사를 제공했다.

'Flying!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UP', '으뜸기업' 등의 고정코너로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 및 일자리 매칭사업을 연중 홍보했고, 이후 '으뜸기업'은 '스마일스토리지'로 개편하고, 으뜸기업 사례를 심층취재하여 기업소개, 인사담당자 및 취업자 인터뷰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코자 했다.

또한 기업사례(하이! 중소기업), 정책건의(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바람), 지원시책 안내(CEO 시책정보), 시장트렌드(국내외 신제품 소개), 직업소개(백인백색), 중진공 사업 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독자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외 '미래형 전지'(3월호), '생활 속으로 들어온 첨단우주기술'(4월호), '현실과 가상의 경계 가상 현실 속으로'(8월호), 인공지능기 시대 열린다(9월호), '스마트기기 첨단 제조장비'(11월호) 등 다양한 기술분야 주제를 심층취재하였다.

이밖에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을 모아 소개하는 '2013 중소기업지원제도' 단행본을 부록으로 제공하여 중기지원시책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발간자료 목록

구분	자료명	발행시기	발행부수
정기간행물	· 월간 '기업나라'	매월1일	9,500부
단행본	· '2013 중소기업지원제도'	'13. 4	15,000부

2013년 신규 정기구독 회원 수(기업정보회원)

구분	목표	무료회원	유료회원	합계
'12년	8,000	417	7,847	8,264
'13년	7,600	600	8,327	8,927

인력양성

연수사업

연수사업은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역량 및 경영자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과 현장실무 적용능력을 배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집합, 맞춤, 원격, 기업현장연수, 소기업 CEO 및 청년창업 CEO 양성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 본원(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 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등 3개의 지방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4년 개원을 목표로 글로벌리더십연수원(가칭, 태백)을 건립하고 있는 등 지난 3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2013년 현재 총 123만 여명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3년 74,155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중앙연수원 51,335명, 지방연수원 22,820명의 실적을 각각 달성하였다. 취업연계과정, 창의인재 양성과정 등 정부정책 연계연수와 문제해결형 현장맞춤연수를 확대하였으며, 지역본지부 건강진단 연계연수, 대외기관과의 협업연수를 신규 추진하였다.

2013년 연수실적

(단위 : 명, %)

과 정	'12년	'13년		
		계획(A)	실적(B)	달성률(B/A)
공개집합(향상)연수	18,683	13,050	18,015	138
맞춤연수	11,858	12,400	15,542	125.3
원격(인터넷·우편연수)	16,925	12,000	16,982	141.5
국제연수	400	300	358	119.3
조직활성화(한마음)연수	4,392	5,500	5,147	93.6
기업현장연수	17,511	10,000	10,657	106.6
청년창업 양성연수	5,154	4,200	7,454	177.5
계	74,923	57,450	74,155	129.1

민간과 차별화된 공공연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연수, 창업 및 취업연계연수, 정책연수를 중점 실시하였고, 시장소외영역인 소기업 연수비중을 확대하였으며('12년 36.7% → '13년 40.1%), 모바일 연수과정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기업교육 환경변화에 대처하였다.

연수원 내부직원이 연수과정을 모니터링하는 “Mystery shopper제도(연수과정 모니터링 시스템)”를 외부 리서치 기관을 통해 연수고객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고, 연수종료 후 고객의 목소리(VOC)를 상시 수집하여 연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밀착된 지역특화과정을 중점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해서 3개의 지방연수원을 활용,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연수과정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CEO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중소기업글로벌리더십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소외영역인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의 낮은 교육훈련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기업 주말특화과정 운영, 맞춤연수 소기업 비중 확대로 소기업의 참여비중을 높였고,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소기업 CEO의 교육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기업 CEO 대상 교육 실시지역을 확대(대전, 원주 등 4개지역 추가)하고 CEO모바일교육, 미래경영콘서트, 독서모임 등 상시 교육을 지원하였다.

중앙 및 지방연수원의 교육담당자로 구성된 “HRD지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공유·전파하고, 연수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연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모든 공개집합연수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 동일 설문을 통한 편차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지식획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학습성취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내용의 현장실무 적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업적용도” 조사를 확대하여 과정별 맞춤형 성과평가체계를 정립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만39세 이하)를 선발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창업교육과 코칭, 창업공간 및 1억원이내 개발비 보조 등이 패키지로 지원되고 (One-Stop 지원), 중간평가를 통해 불성실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입교생을 중간 퇴교시키며(중간퇴교시스템), 마케팅 및 사업화 용자금 등의 후속 연계지원 등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청년층 기술창업의 사업화기간 단축과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2013년에는 사관학교 운영방식을 입소형 위주로 전환(12년 59.8%→13년 83.3%)하고 신규로 맞춤형 특화코칭 제도 도입을 통한 창업코칭 품질을 제고하는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였으며,

지방 사관학교 선발규모를 확대(12년 22.3%→13년 33.6%)하고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시 소재) 개소를 확정하는 등 지방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관 학교식 창업선도대학(7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2개)에 전수하여 청년 창업자 발굴·육성의 전문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3년에는 총 1,867명이 입교 신청하여 3단계 심사를 통해 이 중 301명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 매일 창업활동 보고와 2회에 걸친 중간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47명을 중간 퇴교시켜 최종 254명이 졸업하였다.(졸업식 개최: '14.2.28일, 국무총리 참석)

제3기 청년창업자 입교 현황

(단위 : 명, 업체수)

입교자 현황 ('13. 12월말 현재)				운영 특징
신청	선발(A)	퇴교(B)	졸업(A-B)	
1,867	301	47	254	• 사업 수행능력평가(2회 중간평가) → 미달자 퇴교 조치

제3기 청년창업자 기술분류별 현황

(명, %)

구분	지식 S/W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환경 에너지	생명 식품	공예 기타	화공 섬유	합계
청년창업자	55	47	58	10	11	17	40	16	254
비중	21.7	18.5	22.8	3.9	4.3	6.7	15.8	6.3	100.0

이들 254명은 1년의 사업기간 중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기술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미국(피츠버그) 및 독일(뉘른베르크),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준대상 3개, 금상 10개, 등 총 38개의 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518건을 출원 및 등록하고 191억원의 매출과 73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3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추진 실적

['13. 12월말 기준]

구분	1기 졸업자	2기 졸업자	3기 졸업자	비고
창업(유지)	212업체	213업체	254업체	
현 고용인원	774명	859명	736명	청년CEO 포함
매출액	1,118억원	614억원	191억원	누적액
지재권	1,092건	956건	518건	누적 건수
국내·외 수상	66건	62건	38건	누적 건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졸업 후 5년간 창업기업의 창업유지 및 성과 실태파악 등 성장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창업기업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졸업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전수 실태조사(년 4회)를 실시하여 투자(11개사 60억원), 용자(119개사 122억원), 국내외 11개 전시회 191개사 참가 등 연계지원 하여, 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생존율을 1기 졸업생 96.5%, 2기 졸업생 91%를 유지토록 하였다.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에서 해당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3년에는 중소기업이 일본, 미국, 인도, 독립국가연합 등으로부터 원천기술, IT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201명(수도권 103명(51.2%), 비수도권 98명(48.8%))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국가별로는 기초소재 부품 분야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 IT분야 우수 기술인력을 다수 보유한 인도, 기초과학 분야 기술력이 우수한 독립국가연합 출신 인력이 다수(39.8%)를 차지하였다.

2013년도 사업 성과분석 결과, 외국전문인력 도입으로 기존 제품/기술의 업그레이드(67개 업체,

36.6%)분야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었고, 차순으로 신제품/신기술개발에 도움(53개 업체, 29.0%), 기술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45개 업체, 24.6%) 순으로 나타났고 330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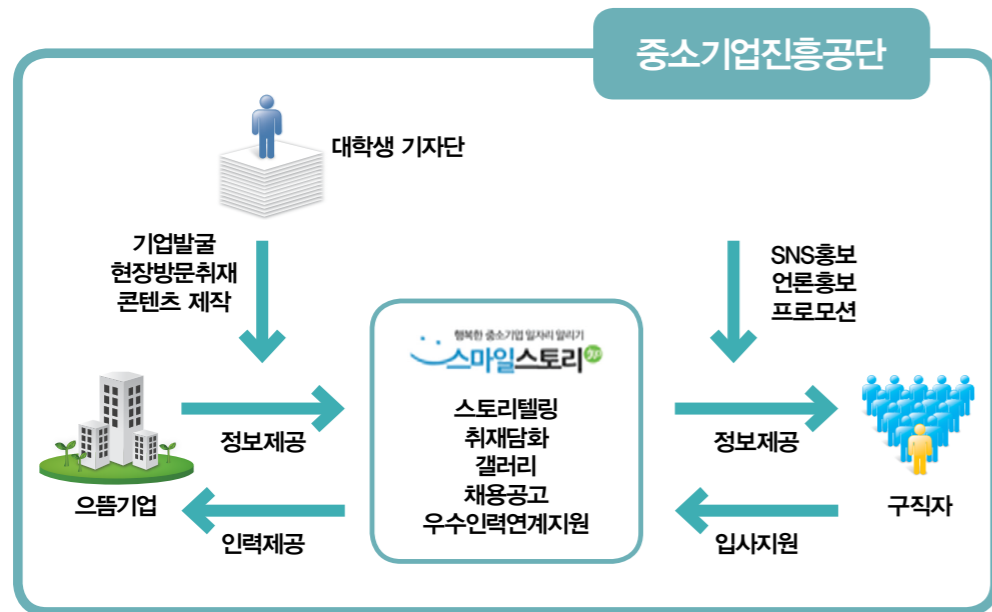
아울러 외국전문인력의 경우, 문화적 근무환경의 차이로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 인력을 위한 “외국전문인력 국내적응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수프로그램에서는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경제현황 교육, 한국 중소기업 문화안내 및 실제사례 소개, 사물놀이 체험, 한복 및 예절 교육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한국 체류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또한 기술유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정보제공(스마일스토리知)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뜸기업)을 발굴·선정하여, DB구축(으뜸 e 대학생기자단의 콘텐츠 제작) 및 정보제공(스마일스토리知 웹사이트)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력미스매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12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3년도에는 증진공지원 우수 중소기업 중 505개사 발굴·선정하여 으뜸기업 1,004개사를 확정하였으며, 1,208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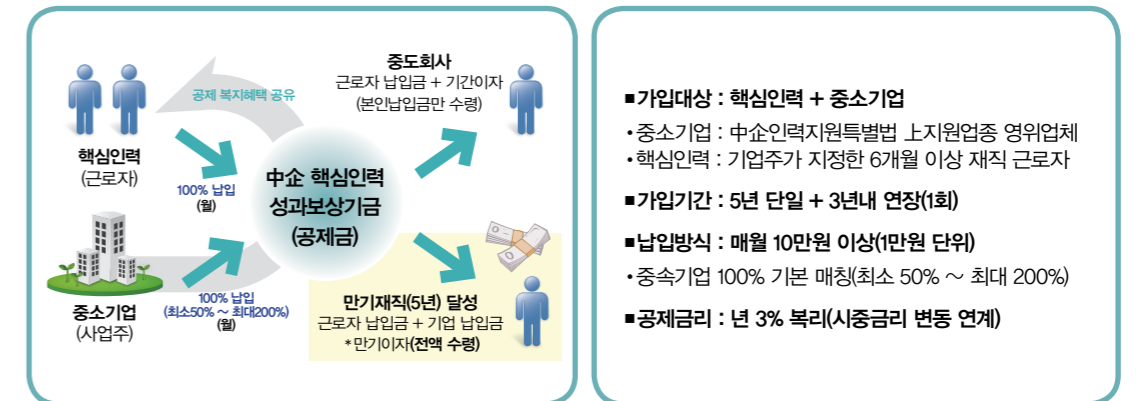


웹사이트 스마일스토리知(www.smilestory.or.kr)는 선정된 으뜸기업에 대해 으뜸 e대학생기자단이 현장을 취재한 후 작성한 스토리텔링, 취재담화, 갤러리사진 등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스마일스토리知 사이트 내에서 으뜸기업의 상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잡매칭데이 등 으뜸기업-대학생간의 인력매칭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 '인크루트' 및 '워크넷' 등에 으뜸기업 채용공고판을 구축, 스마일스토리知와 연계(배너링크)하여 청년구직층에게 으뜸기업 정보를 널리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사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사업은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기업주와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13.12월)을 통해 법률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 8월 출범을 준비 중이다.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법제화 추진경과>**
- '13. 3.25 : "중기청 VIP 업무보고"중 중소기업 스톱업선제 반영
 - '13. 6.12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중 반영(경제장관회의)
 - '13. 8. 8 : "2013년 세제 개편(안)"중 반영(경제장관회의, 기재부)
 - '13. 9.24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중 반영(국무회의)
 - '14. 1.21 : "중소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공포(기금 근거조항 반영)

사업규모는 향후 5년 후 최대 38,000여 업체, 116,000여 핵심인력 가입 전망이며,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업무 자긍심 및 성과보상 인센티브에 따른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 내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인식개선을 기대하게 될 것 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인식 개선 + 국가 핵심인재의 양성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은 미디어 홍보,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바로 알리고,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층에 올바른 직업관과 진취적인 직업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3년도에는 미디어 홍보의 일환으로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총 52회)하여 54개의 다양한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107명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MBC 프라임), KBS 희망기업열전 제작 지원, 라디오 캠페인, 대학주간지(대학내일) 홍보, 지하철 이미지 광고(4개역, 3개월) 등을 실시하여 전국민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하였다.

청년층(중·고·대학생)과 함께 중소기업 체험캠프를 개최(7회, 556명)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문화콘텐츠(연극, 뮤지컬, 뮤직영상, 샌드아트) 활용 특강(19개교, 1,186명)을 진행하고, 중학생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 탐방 특강(12회, 456명)을 실시하여 체험의 기회가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인식개선 체험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과서(중소기업과 나의 꿈)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된 교과서로 시범 운영을 실시(3개교, 889명)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55%의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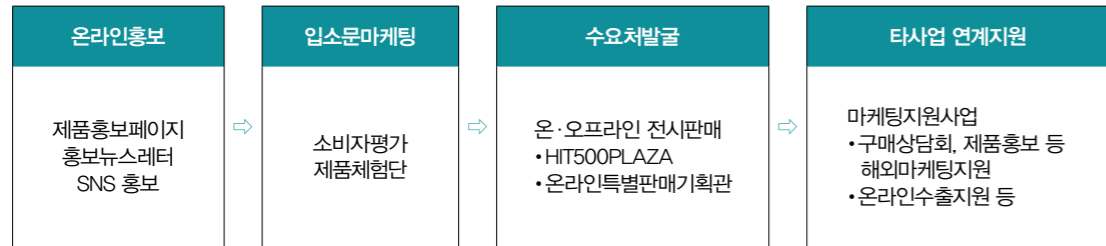
대기업 못지않은 뛰어난 기술력과 복지를 가진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단행본(발칙한 반란을 꿈꾼다), 인재양성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킨 기업들의 이야기를 담은 단행본(인재가 미래다) 등을 제작하고, 중소기업 및 특성화고에 배부하여 청년층 및 기업체 CEO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하였다.

마케팅·글로벌화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HIT500이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시장진입 초보 중소기업 유망 제품을 발굴하여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마케팅과 판로지원을 통해 제품의 시장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2013년 511개 중기제품을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 방식을 통해 선정 후, 웹사이트 내 제품 홍보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전시장 구성, 소비자 평가와 제품 체험을 통한 입소문마케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유통사 MD 등 현직 마케팅전문가 50인을 전문가평가단으로 확대구성하여 HIT500제품 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으며, 해외대형유통망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K-HIT PLAZA에 입점시킴으로써 우수 중기제품 해외진출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HIT500 PLAZA와 온라인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위메프 등)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판매 지원을 통해 연간 2,185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판로지원 사업으로서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향후 HIT500사업은 제품 선정에 있어서 제품실물 평가를 도입하여 시장성 검증에 보다 강화하고, 정부 마케팅지원 사업의 시작점으로 중진공 운영 국내외 마케팅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원 확대 및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HIT500사업 지원실적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HIT500(제품선정수)	603	510	511	1,624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은 수입품, 고가제품, 대기업제품과 품질비교분석을 통해 착한 중소기업 제품(친환경·착한 가격·고품질)을 발굴하고, 선정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추진,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과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정식사업 추진을 통해 물티슈, 아웃도어의류 등 15개 품목군에서 32개의 스마트제품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제품에 대해서는 HIT500PLAZA 우선 입점, 온라인 오픈마켓(옥션,11번가) 내 스마트제품 판매전 진행, 해외대형유통망 연계를 통한 K-HIT PLAZA 입점 등 판로지원을 진행하였으며, HIT500 사이트 내 '중소기업 명품관'을 통한 홍보, 여성전문지 Queen 기획홍보기사 연재, SBS생활경제 내 기획코너 방송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였다.

'13년 스마트제품 발굴 현황

발굴처	품목분야	선정 우수제품수	발굴처	품목분야	선정 우수제품수
자체 발굴	물티슈	5	외부 추천	건전지	1
	아웃도어의류	2		전기주전자	1
	제습기	1		칫솔	1
	친환경벽지	6		마스크팩	1
	아동용책가방	2		등산용 바지	1
	공기청정기	2		차량용 블랙박스	4
	자전거용헬멧	4		계(6개품목)	9
	로봇청소기	0			
	침구청소기	1			
	계(10품목)	23			

계(15품목) 32개 제품

* 등산용 배낭은 '14.3월 결과발표, '13년 품목에서 제외

아울러, 중소기업 CEO 및 직원을 대상으로 친소비자경영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제품 생산 기획부터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착한제품 생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친소비자경영 확산 교육은 2013년까지 59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 사업성과를 토대로 2014년부터는 비교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품질 비교테스트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고, 결과발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저품질 업체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 제품 발굴·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비교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스마트제품에 대해서는 후속판로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케팅기반조성사업

마케팅기반조성사업은 마케팅역량이 부족한 초기기업에 대한 마케팅코칭, 디자인향상 및 마케팅전문교육 등 사전마케팅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을 통해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한다.

동 사업은 2011년까지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교육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2012년부터 사업내용을 개편, 국내우수 대형유통망에서 활동하는 유통전문가(MD)로부터의 1:1코칭 및 품평 형식으로 중진공에서 수행, 상품기획 및 디자인향상 등 상품역량강화, 마케팅실무중심교육을 통한 마케팅전략수립 등 실질적인 사업참여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유통채널별 MD로부터의 원포인트 코칭을 통해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 민간 대형유통망 신규입점 성공까지로 이어지는 시장진입 전 마케팅지원을 통한 성공스토리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 중이다.

향후 지원기업 수 증대(300개사→600개사), 사전마케팅역량 지원분야 추가(시장조사·소비자반응평가) 등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케팅기반조성사업 지원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코칭	140개사	194개사
상품성향상지원(디자인)	-	100개사
마케팅실무교육	471명	538명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사업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사업은 해외 대형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해외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진출 관련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우수제품(Made in Korea)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사업은 국내생산 우수제품의 DB를 구축 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실행비용, 시험·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물류 및 A/S센터 운영, 중기제품 전용매장(K-HIT PLAZA)운영, 유통망 형태별 직접진출 프로모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형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 및 현지 유통망과 연계하는 안테나숍 역할을 하는 중기제품 전용매장(K-HIT PLAZA)은 미국, 인니, 독일, 중국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중국(베이징, 시안)과 베트남 등에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제품 전용매장(K-HIT PLAZA) 설치 현황

구분	매장현황	입점품목	비고
미국	뉴저지 Westfield Garden State Plaza Mall 内(약 48평)	122개 기업 265개 품목	'12.12월 설치
인니	자카르타 롯데마트 플라바가당점 内(약 46평)	62개 기업 270개 품목	'12.12월 설치
독일	기센지역 에데카 16개 매장 (각 약 2평)	100개 기업 274품목	'12.8월 설치
중국	칭다오 까르푸 신흥점 内(약 24평)	22개 기업 367개 품목	'13.12월 설치

해외 대형유통망 직접진출 프로모션으로는 독일 에데카 매장 입점 판매, 미국 유명 백화점 및 온라인·홈쇼핑 프로모션, 중국 및 독일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중국 홈쇼핑 프로모션 등 해외유통망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하여 소비자 직접판매 15억원(중기제품 전용매장 판매 3.7억원, 온라인 판매 1.8억원, 바이어 초청상담회 8억원 및 대형유통매장 프로모션 0.4억원 등) 및 대형유통망 입점 50억원 등 총 65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2013년도는 중소기업 상품 소싱시스템 구축 및 국내외 수행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전용매장 및 온라인 테스트판매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며 대형유통망 입점 등 해외진출 전진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현지 유통시장 환경에 따라 향후 실적확대가 예상된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5백만불~2천만불 미만의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3년간 마케팅/R&D/금융 집중지원을 통해 5천만불이상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선정된 프로그램 수행사를 활용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사업은 참여기업에 대한 글로벌역량진단을 통해 기업 내 핵심기술력 및 마케팅 역량에 대해 진단하고 기업의 맞춤형 성장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총 7개의 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2013년에는 기존 12개 세부 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 단순 비용 보조성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참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였다.

2013년 세부 프로그램 개선 현황

구분	년도	2012년 (11개 프로그램)	2013년 (7개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		검색엔진 공중파 해외광고 글로벌 브랜드개발 온라인수출지원 외국어포장디자인 전략컨설팅 전자무역서비스 제품디자인 해외상품홍보 해외전시회 해외타깃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해외홍소핑 및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글로벌 경영컨설팅 자음마케팅 프로그램 해외전시회 참가 제품 및 외국어 포장 디자인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필수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역량진단

- * 해외홍소핑 및 기업홍보 동영상 : 홍소핑용 및 전시회용 기업(제품) 동영상 제작 지원
- * 글로벌 경영컨설팅 : 참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 * 자음마케팅 프로그램 : 참여기업의 수요에 따라 자유기획을 통한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개선된 세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개발 10건,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30건, 자음마케팅 프로그램 28건 등 총 150개업체를 대상으로 206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13년 세부 프로그램 지원현황

구분	전용프로그램							계
	글로벌 브랜드개발	기업홍보 동영상	해외 전시회	자음 마케팅	글로벌경영 컨설팅	제품 디자인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건수	10	30	113	28	2	11	12	206

온라인수출지원

온라인수출지원(Gobizkorea)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기업 블로그)를 제작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1) 수출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 제작, 무료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Gobizkorea(www.gobizkorea.com)를 기반으로 3,788개의 홈페이지 및 35,668개사의 147,147개 상품정보를 DB화하여 국내상품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 기업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망 구축을 지원하였다.

2)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온라인 무역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구글, 야후 등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포털사이트에 검색엔진최적화(SEO)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상위노출시킴으로써 신규바이어를 발굴하는 검색엔진마케팅 지원사업은 120개사를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신홍시장 타겟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어 맞춤형정보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온라인수출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베트남어관, 인도네시아어관, 러시아어관, 포르투갈어관 등 총 4개관을 운영하여 800개사를 입점시켜 현지화 마케팅을 지원하여 390만불의 수출실적을 창출하였다. 또한 무역인력과 수출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인콰이어리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회신에 필요한 이메일 작성과 견적서, 거래제안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외바이어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2013년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지원실적

세부사업명	실적(건수)	수출실적(US천불)
상품페이지 제작	1,219	5,457
홈페이지 제작	100	445
검색엔진마케팅	120	1,703
온라인수출관	800	3,915
합계	2,239	11,520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사업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사업은 특정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에게 해당 상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 및 알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Gobizkorea 영문사이트를 통해 해외바이어의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한다.

동 사업은 2006년 중소기업수출경쟁력 강화대책(안)으로 시작되어, 2008~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수출실적 35백만불, 2012년 42백만불에 이어 2013년에는 49백만불 수출실적을 창출하였다.

중진공 지역본·지부의 현지 인프라를 활용, 해외바이어가 상품매칭을 원하는 최적의 중소기업을 발굴, 매칭하는 해외바이어알선을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담을 위해 방한하는 해외바이어에게 중소기업 동반방문, 통역, 무역상담, 추가 제품소싱 등을 후속 지원하는 방한바이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였다. 방한하는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현장미팅 총 130건에 대하여 거래조건, 견적, 벤더등록 등 구체적인 협상 진행을 지원하였다.

특히, 정부정책 목적성에 부합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초보기업 해외바이어발굴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및 HIT500 참여기업 중 수출초보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홍보를 통한 바이어 연계, 유효인콰이어리 발굴, 무역실무 지원 등을 지원하였다.

해외바이어알선 이후 수출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절차별 실무상담(오퍼발행, 협상, 수출계약 체결 등) 등 무역관련 제반의 업무에 대해서는 총 465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을 지원하였다.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실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바이어알선	521건	1,218건	1,380건	1,506건	1,706건
방한바이어 지원	-	29건	107건	122건	130건
수출초보기업 해외바이어발굴 지원				60개사	70개사
수출실적	11,413천불	30,203천불	35,501천불	42,042천불	49,018천불

국내수출지원

20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를 통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국내수출지원사업

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348개사이며, 참가기업에 대한 타 사업 연계지원 노력을 통하여 1,633개의 업체가 자금, 연수, 컨설팅, 건강진단 사업을 활용하여 수출실적을 제고하였다.

'13년도 국내수출지원사업 상담 및 수출계약 성과

사업명	실적		성과		
	횟수	참가기업수	상담		계약체결
			상담금액(백만불)	상담횟수	계약금액(백만불)
해외전시회	37회	320개	1,170	10,272	21
무역사절단	122회	1,044개	3,243	14,324	10
수출상담회	8회	340개	646	841	31
계	167회	1,704개	5,059	25,437	62

국내수출지원사업 참가업체 연계지원 실적

(*13. 12월말 현재)

사업유형	참가기업수(a)	연계지원(업체수)					연계율(f/a,%)
		정책자금(b)	연수(c)	컨설팅(d)	건강진단(e)	계(f=b+c+d+e)	
해외전시회	320	53	61	9	11	134	41.9
무역사절단	1,044	262	299	79	82	722	69.2
수출상담회	340	90	155	31	29	305	89.7
지역특화	644	129	262	41	40	472	73.3
계	2,348	534	777	160	162	1,633	69.5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현지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을 경감해 주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임차하기 어려운 3-4명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임차료의 80% 정부지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착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마케팅지원, 컨설팅 및 상담, 현지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업체의 독자 진출 대비 수출인큐베이터 이용시 비용 절감표

구분	독자 진출	인큐베이터 이용
소요비용	200만 원 내외	약 70~80백만 원
• 파견직원 인건비	최소 2명이상	1명
• 마케팅컨설팅 비용	약 32백만원/년간	-
• 법률 및 회계자문 비용	별도 소요	-
• 판촉비, 기타 시장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별도 소요	정보공유·노하우 전수로 초기 시행착오 비용 최소화
• 임대료 및 사무집기	17백만원 내외	월 20만 원 내외

* 1개 입주업체당 연평균 130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

2013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일본(도쿄), 브라질(상파울루), 베트남(호치민),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싱가포르, 멕시코(멕시코시티) 등 주요 해외교역 중심지 및 BRICs 국가에 설치·운영(11개국 17개소)중에 있다.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지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UAE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계	
	뉴욕	LA	워싱턴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도쿄	상파울루	호치민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싱가포르	멕시코 시티		
입주 규모	23	23	12	18	15	21	14	26	10	15	10	12	10	6	16	10	10	251

2013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4억 9,962만달러이며,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의 성과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함이 68.9%, 약간 만족함이 30.3%, 만족하지 않음이 0.85%의 응답을 얻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 수치로 표시한 '수출인큐베이터 전반적 만족도'에서 92.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어 사업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지원사업

우리나라는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3개 대륙 51개국과의 FTA타결('14.3.11 기준)로 세계경제의 61.4%가 우리경제로 편입되는 등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업무 애로사항 및 해외마케팅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중진공은 FTA·수출컨설팅, 교육, 홍보, 글로벌마케팅 등 FTA 활용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였다.

2013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FTA·수출컨설팅, FTA 교육, 글로벌마케팅, 연구·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원산지 확인 및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회계사·세무사·수출전문가 등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FTA·수출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및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 한편, 수출컨설팅과 FTA 닥터컨설팅 등 분리 운영되었던 컨설팅을 통합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관리를 효율화한 결과,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자문내용에 만족하는 수혜업체들이 96%라는 응답을 얻는 등 사업성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그리고 소외지역과 공단밀집지역에서 지역별 FTA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FTA활용지원시책, FTA원산지 실무 등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CEO 및 담당자의 FTA활용 의식을 고취하였다. 특히 한·미 FTA 컨퍼런스를 실시하여 한·미 FTA활용전략 및 필요성을 홍보하였고, 현지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개선을 건의하는 등 FTA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FTA활용지원사업 주요 실적

구분	실적	주요 내용
FTA·수출 컨설팅	836개 업체	FTA원산지확인·증명 및 수출애로 해소
FTA교육	494회, 5,460명	원산지실무, 통관,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한·미 FTA에 대한 정보 제공 (미국실무자 초청을 통한 동시통역 강의 등)
글로벌마케팅	17개사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브랜드 파워가 강한 FTA체결국 현지기업간의 공동브랜드사업화(Co-Branding)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 (공동브랜드사업 10개사, 기술사업화 사업 7개사)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유수의 민간 컨설팅 회사나 마케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수출과 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와 협력파트너의 발굴,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하며, 해외유통망을 확보하고 국제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진출지역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는데 10개월 기준으로 북미·유럽 등 지역은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중국·동서남아 등 기타 지역은 기업 당 최대 1,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50개국에 13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였는데, 특히, 전략프로젝트 수행사(77개사)를 선정하여 기술제휴(수출) 지원, 전략적 품목 및 시장 마케팅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시급한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단기 컨설팅(69개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FTA 효과 확산과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세계 대형소비시장 진입을 위해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대형유통 바이어 초청 우수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였다. 미국·유럽·아시아소재 글로벌 대형유통 바이어 COSTCO, QVC 등 37개사와 중소기업 450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수출계약 가능액은 5,239만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해외진출 성공실패사례 공유 등 글로벌 마인드 제고 교육도 3회 실시하였다.

2013년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은 총 353개사로 수출실적 565백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3년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

구분	민간네트워크수 (개사)	지원기업수 (개사)	수출실적 (백만불)	투자유치 (백만불)	현지법인설립 (개사)	기술협력계약체결 (개사)
2012년	132	412	577	0.2	12	18
2013년	135	353	565	1.2	14	9

사업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리서치기관((주)리서치랩)의 설문조사 결과, 동 사업 전체 만족도는 81.02%이며, 일반 프로젝트 만족도(78.9) 대비 전략 프로젝트 만족도(81.1) 결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나 2014년부터 맞춤형 전략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기청에서 지정한 전략품목생산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현지 마케팅 전문기업 및 해외민간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해외대형유통망 및 글로벌기업 등에 진출하는 수출지원 사업이다.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수탁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지원사업, 해외대형유통망진출사업 등과 연계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총 4개의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였다.

한·미, 한·EU 등의 FTA 체결로 해외수출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는 흐름에 따라, 2013년 수출컨소시엄 타겟시장은 북미와 유럽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현지수요를 고려하여 진출 유망 분야 및 품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2013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추진현황

컨소시엄명	수행기간	타겟시장	참가업체수	예산(백만원)
북미 자동차 부품 수출컨소시엄	'13.3.1~'12.31	북미	10	137
EU 뷰티&헬스케어 수출컨소시엄	'13.3.1~'14.2.28	독일,스위스 등 유럽 5개국	9	145
DPBB*-가정용품 수출컨소시엄	'13.7.1~'11.30	미국	14	50
DPBB-전기전자 수출컨소시엄	'13.8.24~'8.29	미국	9	50

*DPBB (Direct Presentation to Big Buyer) :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프로그램의 대형 전시회

2013년 자동차부품 컨소시엄, 뷰티&헬스케어 컨소시엄의 경우 약 57만불의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DPBB 컨소시엄의 경우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K-HIT매장을 활용, 지속적으로 바이어에게 홍보함으로써 약 550만불(잠정)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2013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세부성과

컨소시엄명	상담실적(천불)	계약액(천불)
북미 자동차 부품 수출컨소시엄	2,105	290
EU 뷰티&헬스케어 수출컨소시엄	1,200	280
DPBB-가정용품 수출컨소시엄	7,000	3,500(잠정)
DPBB-전기전자 수출컨소시엄	5,000	2,000(잠정)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수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수 대학생을 선발, 국내교육을 거쳐 해외진출 중소기업 및 재외동포기업에 해외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교육부 수탁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세계 26개국에 214명을 파견하였다.

2013년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 추진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해외인턴 파견인원(명)	237	214
해외인턴 파견회사(수)	65	65

이들 중 2013년말 기준 171명의 종료인원 중 35명이 해외현지 또는 국내에 취업에 성공하였다.

2013년 국내외 취업실적

구분	파견	취업			취업률(%)
		국내	해외	합계	
인원(명)	214	5	30	35	16.4

인턴과 수용기업 간 매칭률 제고를 위해 수용기업의 업종과 국가를 다양화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해외인턴 전문성 강화로 파견 즉시 실근무가 가능하도록 국내교육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취업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하여 우대지원을 실시하였다.

2013년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

구분	파견	저소득층			장기미취업자	계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 120%이하)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 150%이하)			
인원(명)	214	3	3	55	30	91	42.5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중진공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해외 진출지역 내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지원, 산업기술협력관 교환을 통한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43개국 85개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협력, 세미나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동경·뉴욕·프랑크푸르트·두바이 4개 도시에 파견된 산업기술협력관을 통해 현지의 투자진출 상담, 방문 지원, 협력파트너 알선 및 행사주관 등 현지 진출 등을 밀착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코리아데스크를 해외 진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투자인허가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2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설치된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는 2013년에 현지 진출 희망기업의 법인설립, 파트너 알선 등 상담 120건, 방문기업 지원 17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한·인니 중소기업간 녹색 협력을 위해 인큐베이팅, 컨설팅을 지원하는 GBC(Green Business Center)를 인도네시아에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 마련에 일조하였다.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는 2013년 상담지원 130건, 방문기업 지원 총 20회 등 당초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하며,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는 2005년, 중기청과 산동성 정부와의 MOU체결로 설립되었으며, 정책자금지원, 컨설팅(인사, 노무 등) 실시, 포럼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조속한 현지 정착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 실적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청도
1. 상담지원(건)	120	130	200
2. 한국 방문단 및 방문인사 지원(명)	17	20	11

이외에도, 미국, 독일, UAE, 일본에 각 1명씩 파견된 해외산업기술협력관들은 협력선 알선, 개별상담, 현지 네트워크 확장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중진공은 2013년 한 해 동안 산업기술협력관 교환(11개국 20명), 사절단 교환(11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세계최대 기술거래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EEN을 활용하여, EU 가입국 중소기업과 우리 중소기업간 폭넓은 산업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국제회의 및 외빈 방한 지원 등 해외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

2013년 해외협력기반 조성

구분	실적	비고
산업기술협력관 교환	20회	스페인, 이태리 등 11개국 20명 교환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및 방한 지원	11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독일, 프랑스, 헝가리 등 10개국
세미나 및 설명회	10회	해외진출세미나 및 설명회(10회)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2005년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의 공동선언을 통해 APEC 21개 회원국 중소기업 혁신지원을 위하여 중진공 내 설치된 전담창구이다.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설립·운영되다가 2009년에 중진공으로 이관되었다.

2013년은 “APEC 중소기업 녹색허브(HUB)” 기능을 목표로 협력분야(인적·정보·기술)별 세부사업 수행을 통하여 APEC 회원국 간 네트워크 구축, 녹색정책공유 및 역내 중소기업간 그린기술협력 등을 도모하였다. 컨퍼런스와 워크숍 개최, 웹사이트 운영 등으로 역내 우수정책 사례와 제도를 전파하였고, 혁신컨설팅을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및 강화하였다.

2013년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사업실적

협력분야	세부사업명	실적
네트워크 구축 (인적교류)	APEC 카본 라벨링 워크숍	3월 필리핀, 16개국 39명
	APEC 그린비즈니스 포럼	9월 인도네시아, 18개국 53명
정책전파 (정보교류) 정책전파	웹사이트(www.apec-smeic.org) 운영	상사: 일일방문건수(175건)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및 실무그룹회의	장관(1회:9월)/실무그룹(2회:3월,9월)
	APEC 공식행사 후원	1회: 9월
중소기업간 협력 (기술교류)	혁신컨설팅 실시	21업체/4개국
	APEC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10개 업체(9월, 말레이시아)

혁신센터 사업은 APEC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國格)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차별성이 있는 만큼 계량적 성과창출 차원을 넘어 거시적으로 APEC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셈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 운영

아셈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ASEIC)는『제8차 ASEM 정상회의(’08.10)』VIP 참석 후속조치 이행으로 추진한 아셈 포럼(’10.05) 및 ASEM SOM(고위관리회의, ’10.7)에서 ASEIC 한국 설치를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 2
- 제8차 아셈정상회의 의장성명서(’10.10월)
- 국격제고 중점 관리과제 5-1-4(’10.2월, 국무회의 통과)

ASEIC은 ASEM 회원국이 인준한 협의체로 회원국내 중소기업에게 신뢰성 있는 녹색 정보 제공을 통해 녹색 혁신을 촉진시키며 ASEM 역내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 제공 및 글로벌 녹색 경영 확산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013년도 ASEIC에서는 통합포털사이트(www.aseic.org)를 통하여 회원국내 녹색정책 및 환경규제 정보 등을 제공하였으며, ASEM 회원국 중소기업 대상(5개국, 42개사)으로 Eco-Innovation 컨설팅 실시, 캄보디아 현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대상 녹색혁신 기업가 정신 역량프로그램 운영,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 개선사업, 글로벌 포럼 개최(2회) 등을 통하여 아시아-유럽의 녹색 동반 성장을 위한 다자간 협력촉진을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회원국 정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3년 아셈 중소기업녹색혁신센터 추진실적

세부사업	주요실적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 5개국 42개업체 지원(인도네시아 8개,말레이시아 9개,태국 8개,베트남 8개, 필리핀 9개사)
녹색적정기술 보급 및 확산	• 캄보디아 프로젝트 3년차 수행 - 녹색혁신 기업가정신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유도 - 10주 코스, 9개팀 34명 수료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개발	• '12년에 개발된 ASEI 지수의 개선사업 수행 - 회원국 확대(15개국 → 25개국) - ASEI 사업방향 및 세부지표 개선 - 지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GBC설립 및 운영	• 한·인니 정부간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 • 입주규모 총 13개실(한국 10개, 인니 3개)중 한국 6개사 입주
글로벌 포럼	• ENVForum 국내개최(11.4~5, 서울), 한중녹색포럼(11.20, 대련)
포털사이트 운영 (www.aseic.org)	• ASEIC 사이트 검색엔진 최적화 실시 및 메인페이지 변경 • 온라인 홍보 실시(뉴스레터 발송, 링크드인 개설, 페이스북 활성화등)

2013년 대북진출기업 자금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누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북한내륙지역	24	10,870	-	-	24	10,870	
개성공단	협동화	24	10,385	-	-	24	10,385
	개별	20	19,112	61	37,723	81	56,835
	소계	44	29,497	61	37,723	105	67,220
합 계	68	40,367	61	37,723	129	78,090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사업

남북협력지원사업은 남북경협 확대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목표로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연수, 정보제공 등 기업의 대북사업 추진단계별 요구에 대응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은 정부의 2010년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진출기업의 사업 추진이 여전히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남북협력지원사업 추진 여건 또한 위축되었다. 더군다나 4월초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출입제한 조치로 인하여 개성공단이 6개월 가까이 가동중단에 처함에 따라,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융자, 연2%)을 실시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10월 가동재개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기업 주재원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법인장 및 관리자 경영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교육기회가 전무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과 관리자에게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3 Annual Report

02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현장중심 고객만족 활동으로 고객감동 실현

2013년에는 현장중심의 고객만족 활동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장중심의 고객만족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도 신설한 광역별 CS·윤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고객만족과 관련한 현장책임제를 구축하였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는 광역별 접점부서들의 CS경영 실천과제에 대한 평가권한과 우수 활동들에 대한 환류기능이 추가되어 현장중심의 고객만족 활동에 대한 실천력을 강화시켰다.

고객접점부서의 고객만족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부서별 CS경영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성과 평가와 연계·포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고객만족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현장부서들의 고객만족 활동을 책임지는 CS² 리더를 부서 내 역량 있는 4급 이상으로 지정·운영 현장부서들의 고객만족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고객의 소리(VOC)를 경영 자산화하기 위해 고객 VOC 수집활동을 대폭 강화('12년 4,814건-'13년 5,785건, 20.2% 증가)하였다. 그리고 VOC 중 고객으로부터 받은 칭찬사례를 수집·환류하고 고객 칭찬 CS² 마일리지로 보상하는 등 CS경영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전 직원의 자발적 CS경영 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고객감동을 실현한 직원을 매 월 CS² 스타로 선정·포상하여 CS경영 활동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아울러, 전 직원의 고객응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수준별 맞춤형 집합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현장접점에 있는 전 부서(35개)를 순회하며 고객만족 취약요소들과 고객만족 활동 교육을 진행하여 고객만족 활동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VOC4U>, <CS之心> 등의 정기 소식지를 발간하여 조직 내부의 CS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였고, 대외적으로는 CS시각화 활동(CS부채, 쇼핑백, 스티커 등)을 통해 중진공의 CS경영활동에 대한 고객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현장 중심 고객만족 촉진 노력으로, 2013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PCSI)등이 상승하였다.

< 2013년 CS경영 성과 >

구분	12년	13년
·PCSI	88.2	90.8
·CSI (외부)	94.0	94.2
·상시고객만족도(CS센터 해피콜 만족도)	96.4	96.5
·미스터리쇼핑	94.6	95.1

윤리경영을 통한 고객신뢰 강화

2013년 윤리경영의 목표는 2012년과 동일한 '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진공'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투명 공정한 직무윤리 정립과 신뢰구축을 위한 대내외 윤리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광역CS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기존 현안 공유 중심에서 현장 의견 도출 및 평가참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한 현장부서의 목소리를 계획 내 환류 강화하였다.

전사적인 윤리경영 마인드 내재화를 위해 고객접점 전부서 외 본사 3개 부서가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윤리경영 확산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우수부서 공로자 포상, 부서별 활성화 예산지원 등)을 신설하여 개인과 부서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였다.

전직원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공통필수 교육과 생애주기형 교육으로 체계화하여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부서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관장 윤리엽서 발간, 윤리경영 소식지 등을 통해 업무 현장의 직무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윤리경영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핵심서비스 이행표준을 신규로 수립하여 고객과 직원이 함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실천해야 하는 윤리적 행동범위를 명확화 하고 윤리적 실천 활동을 독려함과 동시에 연간 추진 노력을 계량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중진공 협력고객 대상의 윤리경영 참여교육을 확대하여 실천서약, 윤리경영 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사적 윤리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전임직원이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2·2013'를 발간하여 윤리경영을 포함한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



자정결의 대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구분	13년
윤리상시고객만족도	91.5
윤리경영실천지수	91.6
PCSI 청렴성 요소	92.1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AA등급

윤리경영 추진 성과

진노력을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고서 검증은 최초로 도입하여 내용의 충실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였다.(13년 보고 수준 A+)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

2013년, 사회공헌의 목표를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으로 정하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이며 성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재편하였다. 이를 위해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에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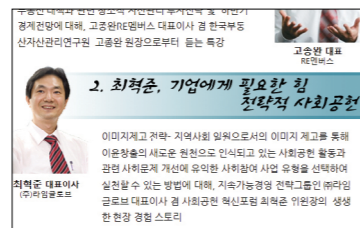
우선, 중진공 고유의 사회공헌 추진을 위해 중진공과 공감함을 합성하여 사회공헌 브랜드 “중진공 感”을 론칭하였다. 중진공 感은 중진공 직원과 수혜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공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브랜드 슬로건은 공감을 통해 감동까지 가자는 포부를 표현하여 “공감에서 감동까지”로 정했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규정을 마련하였다.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하던 고객만족실에 사회공헌 기능을 추가하여 창의지속경영실로 확대·개편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예규를 신설하여 사회공헌 업무 추진을 명문화하였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이며 성과 중심의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영세기업 등 사회적 약자로 사회공헌의 대상을 선택과 집중하고 방식은 재능기부(프로보노) 방식으로 특화하였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SBC 주니어 봉사단을 창단하여 직원과 자녀가 함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회공헌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사회공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총 83개 과제에 대해 평가하여 최우수 “초등·고등학생 우수 중소기업 현장투어를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CEO에게 전략적 사회공헌에 대한 무료 특강을 실시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청년 CEO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였다. 으뜸기업 CEO들에게 강의 기부를 독려하여 12개 대학, 1,7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성장 스토리 등을 내용으로 한 “으뜸기업 CEO 특강”을 추진하였고, '13년 2학기에는 배재대학교 정규과목으로 개설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진공 感 브랜드 포스터



사회공헌 무료 특강



중소기업 현장투어

02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윈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BI 확대·개편 등 국정과제 추진과,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확대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 정부로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총 30명의 인력을 증원하였다. 증원된 인력의 배치와 함께, 국정과제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간 연계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추진 방향	조직개편 내용
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조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성장연수본부를 글로벌판로본부, 인력기술본부로 나누어 마케팅사업 전담 임원을 배치 * 광역본부는 중부권과 남부권을 통합 • (부서) 기존 수출마케팅처와 국제협력처를 기능에 따라 통합·재편하여 글로벌사업처, 마케팅사업처로 개편
② 창업지원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기능 일원화를 통한 연계지원을 위해, 녹색기술처를 창업기술처로 개편하고,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창업지원 기획 및 관리 기능*을 통합 * 청년창업센터,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보육센터
③ 연수 및 인력지원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연수사업 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연수원, 지방연수원 및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인력기술본부장 소관으로 일원화
④ 본사 지방이전 조기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혁신 기반구축 및 조직문화 개선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지속경영실을 창의지속경영실로 개편

조직의 선진적 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학점, 어학성적 등 정형화된 스펙 대신 기관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최초로 대졸 신입직원 채용시 스펙초월 소셜리크루팅 전형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서류전형 대신 3주간 온라인 미션수행 결과만으로 최종 면접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이름과 연락처 외에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스펙에 따른 필터링을 전면 폐지하였고 소수의 인사담당자 대신 36명의 현업부서 근무직원이 직접 과제물을 평가토록 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문제해결력, 열정, 도덕성 등 중진공 직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 중진공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펙초월 소셜리크루팅 결과 최종면접대상자 중 58.8%가 중진공 서류전형 탈락자였을 정도로 스펙 때문에 면접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역량우수 인재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청년위원회 토크 스펙초월 간담회 사례발표 등을 통해 구직자들의 과한 스펙쌓기 경쟁 완화 및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에 강한 직무전문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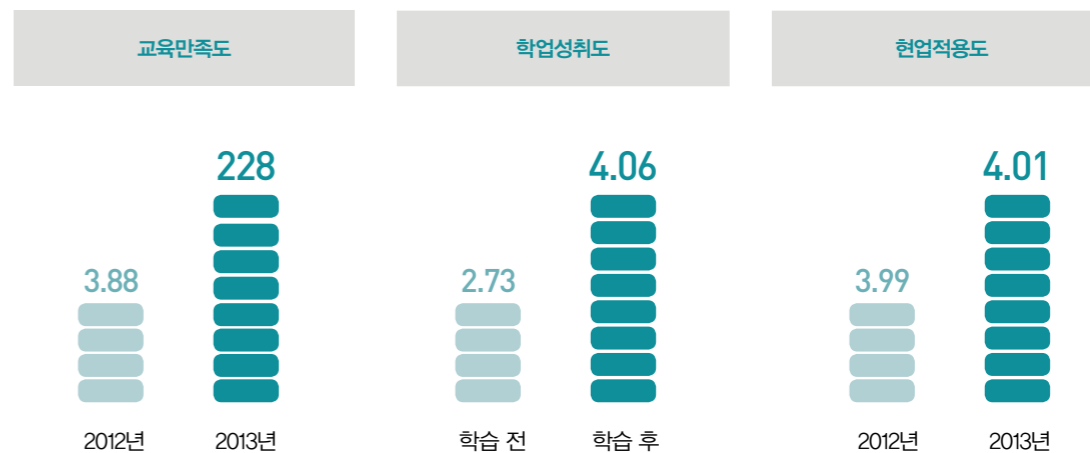
2013년은 전년도에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 강한 직무전문가 육성」을 HRD 목표로 삼아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교육시간 4.1%, 교육인원은 3,213명 증가 하였다.(아래 표 참조) 특히 임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전문교육 과정을 전직원 필수과정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교육 실적				직무교육 비중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2012년	2013년
(단위 : 시간, 백만원)					
교육시간	102,216	106,610	4.1%	75.3%	76.4%
·공통	25,292	25,209	△0.3%		
·직무전문	76,924	81,401	5.5%		
교육인원	10,971	14,184	3,213		

중진공의 핵심 직무역량인 '업종별 기술', '건강진단' 및 '심사/리스크' 교육 과정을 초·중·고급의 수

준별 체계를 수립하고 임직원의 니즈를 반영한 신규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특히 신규과정과 전년도 만족도 하위과정에 대하여 FGI(표적집단면접)을 도입, 심도 있는 평가와 개선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만족도는 물론 현업적용도를 높였다.



또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장기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신입직원의 조기전력화를 위해 입문교육 프로그램에도 직무교육과 실습교육과정을 대폭 늘려 현장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본부 배치 이후 5주간의 직무 심화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교육 전 업무 수행도가 2.32에 머무르던 것이 3.84까지 향상(5점척도 평가)되는 효과를 거뒀다.

중진공은 직급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도 강화했다. 임원, 부서장, 팀장 등 각각의 직급에 맞춰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본사 이전에 대비해 조직의 단합을 다지기 위한 핵심가치 3단계 교육을 총 10회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평균 0.27p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참고] '13년 직무집합 교육 신규과정

- 업종별 기술교육 : 기술이해심화(금융 및 화공) 2과정
- 기업진단 교육 : 제조현장의 이해
- 사후관리 교육 : 사후관리 Real Basic, 직접대출 사후관리 실무
- 기업심사 교육 : 기업심사실무(기초)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상 강화

조직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핵심성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전략목표와 성과관리간 연계성을 강화(전략·KPI 연계율 100%)하여 전사 전략목표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으며, 핵심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선으로 평가지표수를 평균 13.4개에서 11.9개로 축소하고 최종성과 창출 강화를 위하여 결과지표 비중을 확대하였다.

〈핵심성과 중심의 지표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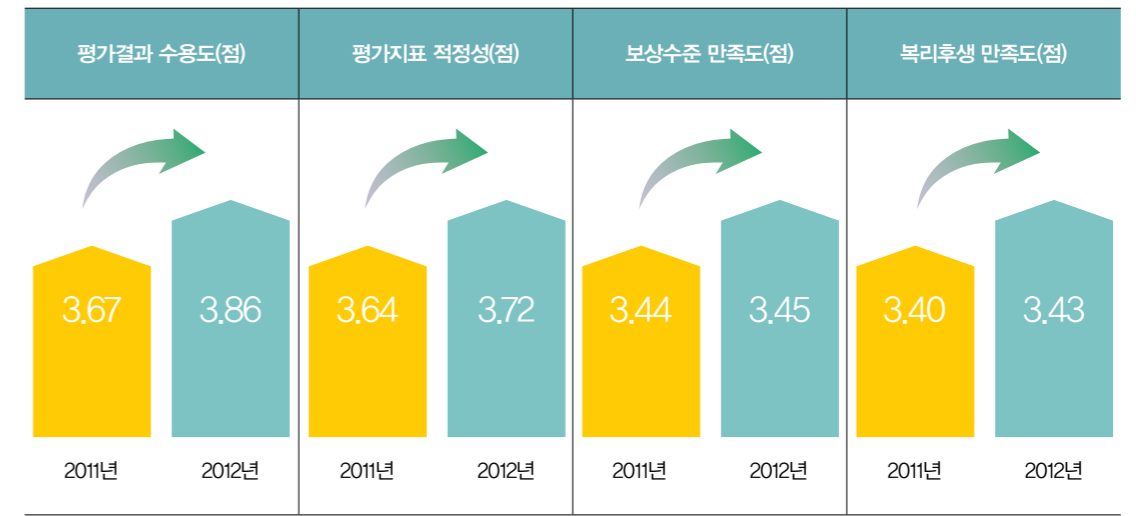
구분	12년	13년	증감
전략·KPI 연계율	100.0%	100.0%	-
평가지표수(평균)	13.4개	11.9개	△11.2%
결과지표 비중	22.1%	31.3%	9.2%p↑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폭 및 직무급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기반의 인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부서장 및 팀장 보직 우선부여, 성과부진 부서장에 대한 보직 미부여 등의 성과·인사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역량·성과향상 코칭, 체계적인 사후 점검 및 교육 부진자 제재 방안 마련 등 성과부진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성과중심의 차등보상 강화〉

구분	12년	13년	증감
총연봉 차등폭	20.7%	23.5%	13.5%↑
경평 성과급	2.4배	2.5배	4.2%↑
직무급 비중	3.1%	3.3%	6.5%↑

이러한 핵심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운영 및 성과주의 보상 시스템 운영으로 부서평가제도에 대한 평가결과 수용도 및 평가지표 적정성이 상승하였으며, 보상수준 만족도 및 복리후생 만족도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만족도가 상승하였다.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3 Annual Report

03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방향

2014년 사업추진방향

2014년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자, 정부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활성화하며, 청년·여성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2014년에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재창업자금 및 재기지원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BI,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및 수출윈스톱 서비스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꿈이 성공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 정책자금

2014년 정책자금 용자규모는 전년대비 소폭(0.8%) 감소한 3조 8,200억원으로 2013년 경기 회복을 위해 실시했던 정책자금의 양적 지원확대를 축소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기업 건강진단을 통한 정책자금 연계지원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1조 2,000억원으로 유지하되, 직접대출 위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재창업자금을 증액하고,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 인력의 창업 도전을 유도하며, 특허담보대출을 1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제조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공인에 대한 소공인특화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만성적인 줄서기 문제 해소를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책자금 신청시 제3자의 부당개입을 방지하고자 관련 제도를 보완하며, 재고자산 담보대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 기술컨설팅 및 현장애로 해결

기술지원은 정부의 융합컨설팅 및 협업과제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목표에 부합되도록, 인력 및 기술컨설팅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합컨설팅을 신규로 추진하며,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연계지원을 통해 지원성과를 창출한다. 또한, 국내외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고급 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중진공의 전국적 현장조직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규제 개선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 인력양성

연수사업은 연수체계 및 과정개편을 통해 교육 효율화, 차별화를 이룩한다. 중점 연수분야를 재설정하여 핵심분야에 집중토록 하고, 특히, 정책자금, 마케팅 등 지원분야별 정책연수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정책안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창조경제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융합 과정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출범하게 되며, 이 사업을 통해 '교육연수-성과보상-인식개선'의 연결이 이루어져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성과가 기대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창업자 선발 및 운영 방식을 '신규 창업기업 육성'과 '후속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지역특화산업 영위 창업자를 선발하고, 충남권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소하는 등 지방 창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4) 마케팅·글로벌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은 수출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협력기반 구축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는 kotra를 통해 위탁운영 하던 수출 BI 중 6개를 글로벌 BI로 전환하여 직접 운영하고, 신흥시장 위주로 글로벌 BI를 추가로 설치한다. 글로벌 BI는 기존의 사무공간 제공을 넘어, 금융, R&D,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연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대형유통망진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중국 및 동남아 내수시장 진출지원을 확대하며,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 운영을 중소기업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 구축한 윈스톱 수출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진단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HIT500사업의 유망제품 발굴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의 후속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지원은 e비즈사업팀을 '온라인수출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온라인 유망품목 소싱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전문기업 및 파워셀러를 육성한다.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비영어권 국가의 현지어로 구성된 온라인 수출관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3 Annual Report

04

부록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2013년 발간 간행물
2013년 주요 행사
조직도
운영위원 및 임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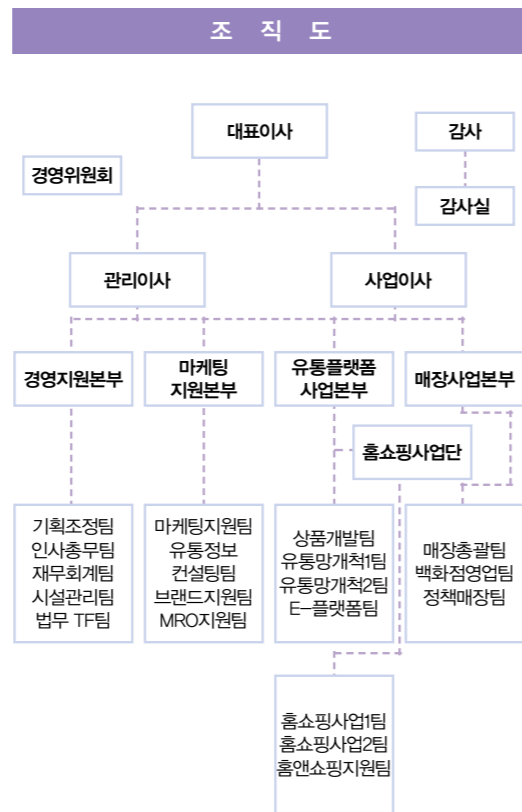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설립되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전문적인 판로지원을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목동판매장(행복한세상백화점)을 개점하였으며, '12년 9월에는 '행복한백화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4층 전체매장(1,100평)을 중소기업전용판매장 「HIT500 PLAZA」으로 확대 오픈하여 창업벤처상품, 지역특화상품, HIT500제품, 청년창업사관학교 제품 등의 초기 테스트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TV홈쇼핑사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12년 중소기업전용홈쇼핑(홈&쇼핑) 개국(15% 출자)과 더불어 중기전용홈쇼핑에도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판매대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중소기업제품의 발굴·판매지원의 공적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인천공항면세점, KTX역사 등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중소기업전용판매장(HIT500 PLAZA)을 설치·운영 중이며, 2013년에는 서울 명동, 충북 청주에도 판매장을 개설하였다. 유통센터는 오프라인 판매장의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인지도 제고, 판매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통센터는 2013년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사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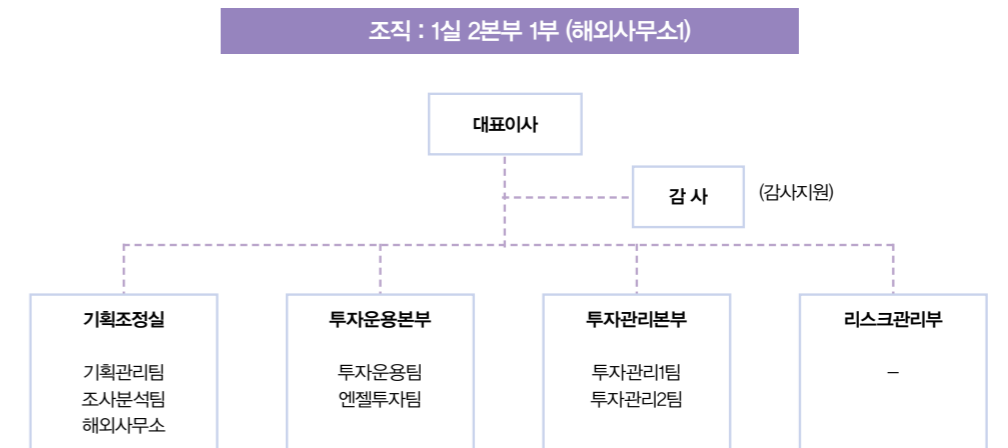
원 사업의 매체 다양화(인론매체, TV홈쇼핑, 소셜커머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였다. 그밖에도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구매상담회(판매전) 지원, MRO종합지원센터 등 정부의 다양한 마케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벤처투자(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결성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영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舊 다산벤처)으로서 2005년 6월 29일 개소하였다.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2013년 말 현재 1조 6,216억원이 조성되어, 2조 2,301억원(289개 조합)을 출자약정하여, 8조 4,108억원의 자조합(한국벤처투자 조합 등)을 결성하였다.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주)는 해외 벤처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를 설립('13.8월)하였으며, 내외 벤처투자 정보 공유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국내외 LP(Limited Partner) 및 GP(General Partner)를 대상으로 International Value Workshop 및 'Start-up Korea 2013'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투자자와 제작사간 네트워킹 및 모태펀드 성과 홍보를 위해 '2013 한국모태펀드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VC/PE Monthly(벤처캐피탈 전문 월간지)를 발간하여 관련 벤처캐피탈산업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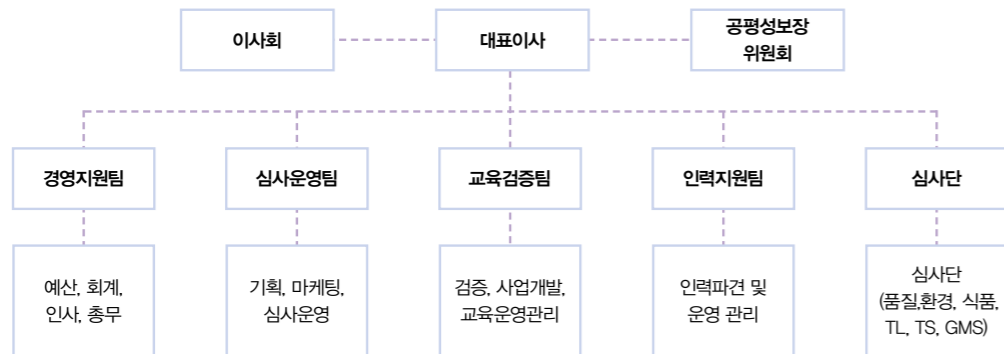
SBC인증원

SBC인증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와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품질경영체제 인증관련 사업추진 위촉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7월 28일 중진공 ISO 9000인증기관으로 설립되어 1996년 1월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인증원은 ISO 9001(품질경영체제), ISO 14001(환경경영체제), TL 9000(정보통신 부문의 품질경영체제), ISO 22000(식품 부문의 품질경영체제), KS I 7001(녹색경영체제)의 인증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12년부터 인증원의 수익성 개선과 고품질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인력파견 사업을 추가하였고,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인력파견업을 수행하여 '12년 52명, '13년 60명으로 사업성과를 달성하였다.

사업실적

구분	인증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1	722	2,049	56
2012	767	4,042	103
2013	790	4,739	130



04 부록

2013년 발간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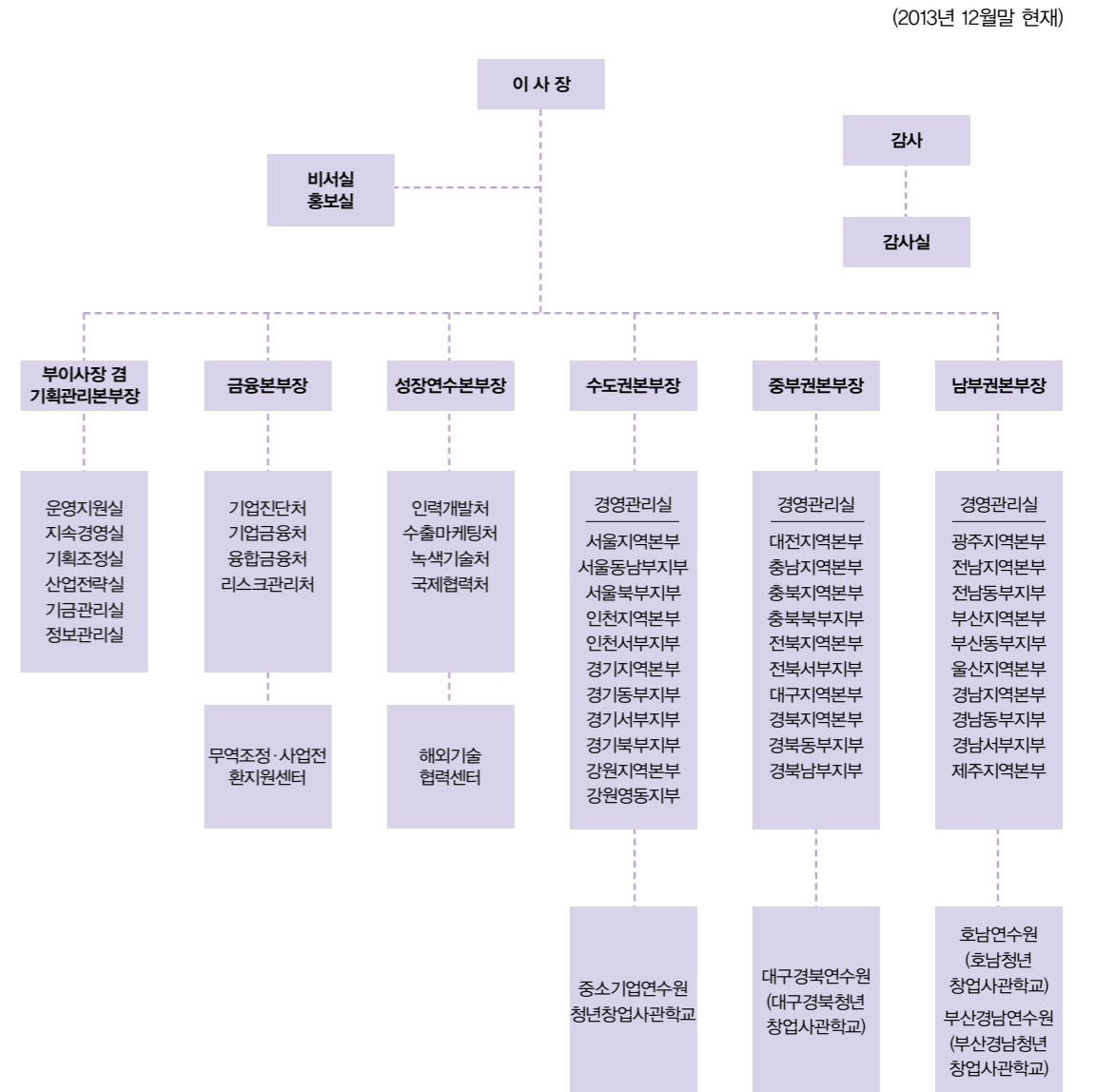
열정과 공감의 특별한 하모니	'13.1
중소기업 FTA 활용 가이드북	'13.1
초보기업 유통채널 진출하기	'13.4
2013년 중소기업지원제도	'13.4
2012년 연차보고서	'13.4
2013 한·미 FTA 활용 수출중대 우수 중소기업사례 모음	'13.6
발칙한 반란을 꿈꾼다	'13.7
청년, 창업에 미치다 2	'13.8
자연이 빛은 명품기업들 -지역특화 선도기업 스토리	'13.9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공 스토리 -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공사례집	'13.9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2·2013	'13.11
2013년 중소기업 정책- 그 새로운 시각- 제21회 중소기업 체험리포트 및 논문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13.11
2013년 해외파견협력관 지원 성공사례 & 국가별 제도 가이드	'13.11
'좋은일자리-좋은 인재의 만남, 성공사례집	'13.11
청년전용창업자금 우수사례집(젊은 그들의 창업신화)	'13.12
온라인 수출마케팅 고비즈코리아가 답이다	'13.12

2013년 주요행사

1월	2일 22일 30일	2013년 시무식 박철규 이사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제34주년 창립기념행사
2월	5일 15일 28일	KTX부산역사 정책매장 오픈 2013년 제1차 운영위원회 청년창업사관학교 제2기 졸업식
3월	4일 11일 21일	임원 및 부서장 핵심과제 협약식 이노비즈 협회 MOU 체결(우수 중소기업 발굴) 미국 미주리주 MOU 체결(중소기업 자원 협력)
4월	12일 25일	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산업은행 MOU 체결(중소기업 금융지원 협력)
5월	6일 9일 10일 11일 31일	출자회사 대표이사 경영계약 체결식 HIT500 PLAZA 명동매장 개장식 CI 선포식 및 전략워크숍 춘계 체육대회 청년창업사관학교 제3기 입교식
6월	11일 20일 25일	한중FTA 정책토론회 금융지원위원회, 정책과제 연구회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7월	4일 16일 26일	중소기업청 정책홍보 워크숍 특성화고 대상 중소기업 바로알기 특강 국제 신용평가 연례평정
8월	12일 19일 22일 30일	신입직원 입문교육 2013년 을지연습 의정부공공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비상임이사 현장 경영 지원
9월	5일 13일 18일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UAE 샤르자 경제부 MOU 체결
10월	15일 25일 29일 31일	2013년 국정감사 수감 추계 사회공헌 활동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중기연구원 창립 20주년 행사, Asian SME 컨퍼런스
11월	5일 14일 26일	일본 중소기업과 한일 정례회의 한국장학재단 MOU 체결(청년 일자리 창출) 서울 2013 청년창업로드쇼
12월	3일 4일 12일 20일 27일	중진공-신한은행 사회공헌사업 취업박람회 중국 청도 K-HIT PLAZA 개소식 2013 SBC 3.0 혁신사례 경진대회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회의, 중기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2014 업무보고

조직도

■ 11실, 8처, 31지역본·지부, 4연수원, 1청년창업사관학교, 2센터



운영위원 및 임원

운영위원

(2013년 12월말 현재)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 위
위원장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연직	박춘섭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박태성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위촉직	이동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문위원
	임재운	서강대학교	교수
	이은정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권영택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박창교	(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옥평권	(주)하도	대표이사

임원

(2013년 12월말 현재)

직 위	직 무	성 명
이사장	중진공을 대표하고, 중진공의 업무 총괄	박철규
감 사	중진공의 업무 및 회계 감사	손광희
부이사장 겸 기획관리본부장	이사장 보좌, 기획 및 관리 업무 총괄 경영지원, 기획조정, 정책조사, 고객만족 등과 관련된 업무	김범규
금융본부장	진단, 융자,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담당	김인성
성장연수본부장	마케팅, 글로벌, 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담당	김석기
수도권본부장	수도권 지역본·지부 및 중소기업연수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업무 담당	이상철
중부권본부장	중부권 지역본·지부 및 대구경북연수원 업무 담당	장덕복
남부권본부장	남부권 지역본·지부 및 호남·부산경남연수원 업무 담당	심현석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경영자문 등의 업무	오석송
비상임이사	"	서영옥
비상임이사	"	방은희
비상임이사	"	정광호
비상임이사	"	김종운
비상임이사	"	이상철
비상임이사	"	곽봉호
비상임이사	"	임승수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4년 5월

기획 및 편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전략실

발행인 박철규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